
화성시 서남부권 문화콘텐츠 조사 용역 최종보고서

2020. 12.

< 목 차 >

1. 최종 보고 개요.....	2p
1.1. 조사목적.....	2p
1.2. 조사범위.....	3p
1.3. 조사방식.....	5p
1.4. 조사일정.....	7p
2. 조사 활동 보고.....	8p
2.1. 문화콘텐츠 사업 계획 제안.....	8p
2.1.1. 공생염전 <공생염전,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	8p
2.1.2. 이옥과 화성 <이옥의 문학 작품, 오디오북으로 꽃피다>	27p
2.2. 문화콘텐츠 제안.....	
2.2.1. 송산면 <송산의 보물>	41p
2.2.2. 화성재인청 이동안 <이동안 예술을 기리고 배우다>	55p
2.2.3. 남양성모성지 <화성시 서남부 천주교를 잇다>	65p
2.2.4. 간척사업 <서남부 간척지대, 바닷길을 걷다>	81p
2.2.5. 수인선 <수인선, 화성의 기차길 나들이>	91p
2.3. 추가 제안.....	98p
2.3.1. 화성시 서남부권 아카이브 <마을기록 프로젝트>	98p
-참고문헌	105p

1 최종 보고 개요

과업명	화성시 서남부권 문화콘텐츠 조사 용역
과업기간	2020. 8. ~ 2020. 12.

1.1. 조사목적

▣ 화성시 서남부 역사 및 문화자원의 발굴·활용

화성시 서남부가 지닌 역사·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화성시 지역 내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

화성시 동부권에 비해 소외된 서남부권의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문화 사업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함.

▣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찾고 지역 예술인의 니즈를 반영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문화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함.

1.2. 조사범위

■ 과업 범위

① 사업 대상 구역의 관련 자료 수집

- 관련자료 수집
- 수집대상 자료: 구술자료, 기록자료, 지도, 사진, 영상물 등
- 면담자 선정 및 사전 질문지 준비

② 조사, 수집된 구술 자료의 텍스트파일, 동영상파일, 녹취록 작성

- 사전 질문지에 따른 구술자 면담진행 및 영상기록, 음성기록, 사진자료, 녹취문 등 생산
- 구술기록개요, 구술자 신상기록부, 면담일지 등의 각종 산출물 작성

③ 콘텐츠 기획 및 제안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녹취 자료 작성

④ 영상 자료, 녹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 기획 및 제안

⑤ 최종보고서 제작

■ 사업수행 제안 범위

① 대상

화성시 서남부권 역사·문화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 서남부 문화예술 사업, 언택트(Untact) 프로그램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개발

② 공간적 범위

화성시 서남부권(새솔동, 남양읍,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마도면, 매송면,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양감면, 장안면, 정남면, 팔탄면) 14개 지역

③ 사업 계획 제안 및 콘텐츠 제안

- 사업 계획 제안 : 공생염전, 이옥과 화성
- 콘텐츠 제안 : 간척과 어촌, 수인선, 남양성모성지, 송산면, 화성재인청 이동안

▣ 내용적 범위

① 사업 계획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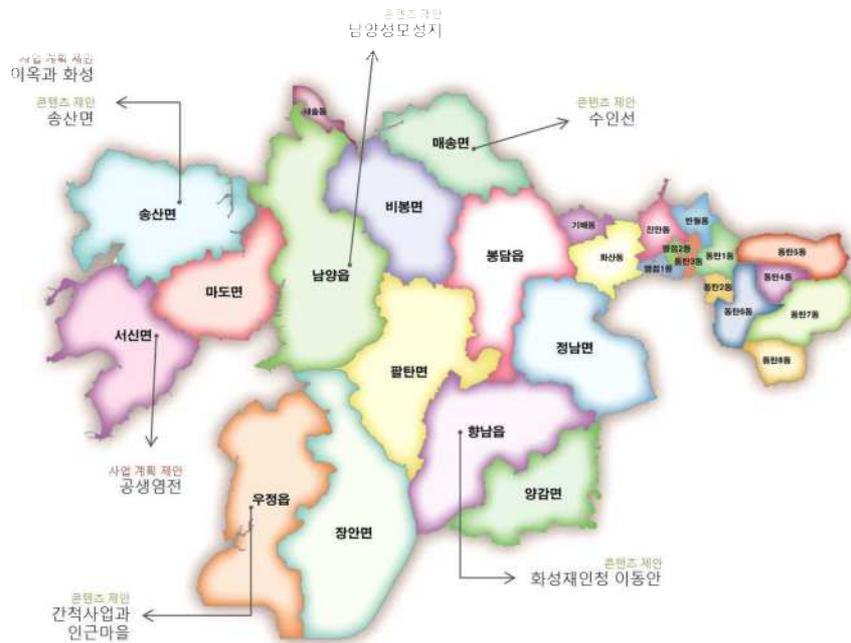
- 공생염전 <공생염전,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
 - 공생염전 모티브 굿즈 제작 키트 ‘내손내만’
 - 공생염전 아카이브 전시관
 - 연극 교실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
 - 소금 예술 축제
- 이옥과 화성 <이옥의 문학 작품, 오디오북으로 꽃피다>
 - 오디오북 ‘시민이 만드는 이옥 이야기’
 - 이옥 문학 릴레이 오디오북
 - 이옥 문학관

② 콘텐츠 제안

- 간척사업 <서남부 간척지대, 바닷길을 걷다>
- 수인선 <수인선, 화성의 기차길 나들이>
- 송산면 <송산의 보물>
- 화성재인청 이동안 <이동안 예술을 기리고 배우다>
- 남양성모성지 <화성시 서남부 천주교를 잇다>

③ 추가 제안

- 화성시 서남부권 아카이브 <마을기록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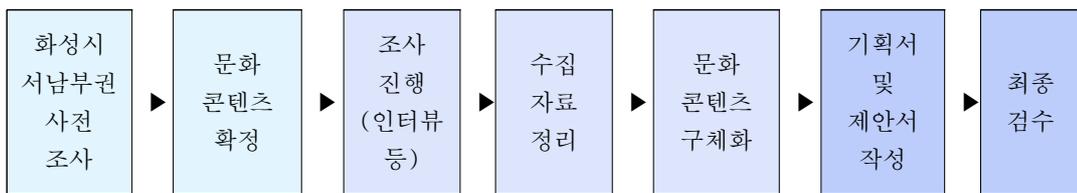
출처: 화성시청

1.3. 조사방식

▣ 사업추진전략

-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가 구성 및 협업체계 구축
- 화성시 서남부권에 대한 이해, 최적 방법론 정립
- 현장조사 중심의 콘텐츠 발굴
-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 제시

▣ 사업진행 순서도



▣ 사업진행

- ① 화성시 서남부권 사전 조사
: 논문·단행본 열람, 온라인 조사,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동원하여 화성시 서남부권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음.
- ② 문화콘텐츠 확정
: 화성시 서남부 사전 조사를 통해 얻을 자료를 바탕으로 서남부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13가지를 우선 정함. 내부 논의와 전문가 조언을 통해 실현 가능성, 개발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7가지로 확정함.
- ③ 조사 진행(인터뷰 등)
: 문화콘텐츠 7가지 중에서 ‘공생염전’, ‘송산면’은 현장 답사 및 관련 대상자 인터뷰를 진행함. 「인터뷰 및 사진자료 공개·이용허가서」 및 「녹취 동의서」를 미리 준비하여 동의를 받음. 현장 조사를 통해 개인 사진, 현장 사진 등을 획득함. 더불어 학술적 정보를 추가 조사함.
- ④ 수집 자료 정리
: 관련 대상자 인터뷰 진행 중에 노트북, 녹음기, 카메라, 캠코더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정리함. 특히 녹음 파일은 녹취록으로 풀어 콘텐츠 제작에 용이하도록 함.
- ⑤ 문화콘텐츠 구체화

: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통합하여 7가지 문화콘텐츠 소재를 각각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기획, 제안함.

⑥ 기획서 및 제안서 작성

: 7가지 문화콘텐츠 중, 2가지 문화콘텐츠 기획서와 5가지 문화콘텐츠 제안서를 작성함.

⑦ 최종 제출

1.4. 조사일정

▣ 착수일부터 ~ 2020년 12월

- ▶ 중간보고 : 2020년 11월 4일 (수)
- ▶ 최종보고 : 2020년 12월 10일 (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수립					
사전 회의					
용역 진행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2 조사활동 보고

2.1. 문화콘텐츠 사업 계획 제안

공생염전

공생염전,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

- 제작키트, 연극, 예술 축제, 아카이브로 희망의 신화를 잇다

1. 기획 의도

- 1.1. 기획 배경
- 1.2. 기획 목적
- 1.3. 기대효과

2. 사전 조사

- 2.1. 공생염전의 역사와 현황
 - 2.1.1. 소금의 역사
 - 2.1.2. 공생염전의 역사
 - 2.1.3. 공생염전의 특징
 - 2.1.4. 공생염전의 현재
- 2.2. 사례 조사
 - 2.2.1. 신안증도소금박물관
 - 2.2.2. 영광군 하늘소금 비단갯벌 마을
 - 2.2.3. 2018 공예·식문화 특별전 ‘소금·빛깔·맛깔·때깔’

3. ‘공생염전,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

- 3.1. 사업 계획 제안
 - 3.1.1. 공생염전 모티브 굿즈 제작 키트
 - 3.1.2. 공생염전 전시관
 - 3.1.3. 연극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
 - 3.1.4. 소금 예술 축제

1. 기획 의도

1.1. 기획 배경

오늘날의 사회는 생명력을 잃고 있다. 급격한 발전에 따른 도시화, 개인화는 사람들을 서로에게서 밀어냈고, 코로나 19 사태는 그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코로나 블루’라 불리는 신드롬과, 온갖 도처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 우리는 생명을 잃고 있다. 어느 때 보다도 대중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줄, ‘생 에너지’가 가득한 콘텐츠가 필요한 시대다.

공생염전은 화성시 서부 해안가, 서신면 매화리 759-12에 위치하고 있다. 6.25 전쟁 당시 고향을 잃은 피난민들이 모여 만들어낸 공생염전은, 경기만을 대표하는 자랑거리 중 하나이다. 예로부터 양질의 소금이 난다던 화성시의 해안가. 공생염전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점차 쇠퇴를 거듭해, 이곳을 지키는 이는 몇 남지 않았다. 본 사업을 통해 공생염전이 가진 생명력의 모티브를 발굴하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승화시켜 화성시 서부권을 ‘치유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1.2. 기획 목적

염전은 ‘생명의 장’으로서 여러 상징성을 갖는다. 먼저 소금을 머금은 바닷물은 태아 시절,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양수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 또한 현존하는 생명체는 물에서 진화를 거듭해 육지로 나온 결과물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모성(母性)적 이미지를 갖는 바다. 이를 오랜 시간동안 땀 흘려 끓이고, 햇빛에 말려내서야 비로소 소금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소금은 또한 모든 생명의 필수적인 영양 요소로서,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생명의 근원에서 생명의 요소를 뽑아내는 과정은 과연 쉽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마치 아이를 품은 임산부의 인내와도 같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던 송고한 노동이다. ‘공생염전,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의 문화콘텐츠 사업은 생명을 틈워내는 상징에 초점을 맞추어, 불황과 코로나 사태로 우울을 호소하는 현 사회인들에게 활기를 전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또한 경기만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기만 에코뮤지엄’의 방향성과 연계, 화성 서부 일대를 치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1.3. 기대효과

현재 공생염전을 운영하고 있는 염부는 몇 남지 않았다. 총 7가구만이 염전을 운영하고 있고, 그마저도 노령의 주민들만이 남아, 염전은 사장위기에 처해있다. 공생염전의 쇠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미흡한 홍보, 브랜드 런칭 때문이다. 오늘날 최대 소금 생산지인 신안은 '천일염'이라는 소금 제조 과정 자체를 브랜드화 하고, '천사의 섬'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역 특산물의 강점을 살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공생염전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도 많고, 시제품으로 시장에서 쉬이 찾아보기도 힘들다. 더군다나 타 공장형 소금 생산처에 비해 노동력도 배가 들어 경쟁력에서 밀리는 판국이다.

본 사업에서 진행할 연극, 예술 축제, 전시관 개설 등으로 이러한 약점을 역 이용할 수 있다. 이전까지 존재를 몰랐던 화성 서부의 염전을 대내외로 알리는 홍보의 장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화성 서부 소금의 역사와 품질을 함께 자랑하여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소금 예술 축제의 경우, 공생염전에서 직접 생산한 소금을 그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여 자연적으로 수요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더 나아가 축제가 성황을 이루고, 소금의 질이 인정받게 된다면 소금 전문 예술가들과 매매 협약을 맺을 수도 있다. 연극은 염전과 소금이 탄생하기까지의 고된 노동을 그리면서, 공생염전의 소금에 어떤 가치가 담겨있는지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게 할 것이다. 이는 '질이 좋다. 친환경적이다.' 등의 표상적으로 꾸며낸 마케팅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호응을 자아낼 것이다.

위와 같은 기획은 일반 대중의 공생염전 방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점차 공생염전을 중심으로 방문객이 늘고, 지역 활성화를 이룩한 뒤엔 장차 화성 서부를 화성호, 경기만을 필두로 한 친환경 치유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사전 조사

2.1. 공생염전

2.1.1 소금의 역사

예로부터 소금은 중요한 자원으로, 일찍이 생산 및 유통에 종사하는 이들이 있었다. 삼국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는 소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소금이 시주되었다는 기록¹⁾을,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의 미천왕이 청년시절 소금 장사를 했다는 기록²⁾을 담고 있다. 당시부터 시작된 소금 생산은 대를 이어나갔고, 특히 조선조에 수도권 인구가 대폭 늘면서 인천과 경기 지역이 대표적인 소금 생산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경기 서남부 화성의 소금은 그 품질을 인정받아 왕실에서 진상품으로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화성 남양 지방의 관리는 소금관리를 주요 업무로 두었는데, 승정원일기에서는 고종 대의 남양부사가 소금 관리를 잘하였다는 이유로 한 단계 높은 품계를 하사받은 기록을 전하고 있다.³⁾

2.1.2 공생염전의 역사

공생염전이 조성된 것은 1951년 6월 25일에 발발한 전쟁을 원인으로 두고 있다. 외부인에게 공생염전의 조성 집단은 황해도 피난민들로 알려져 있으나, 현 공생염전 12호 염전주인 이순용 선생의 증언으로는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쟁 간 격전지였던 ‘철의 삼각지대’에 속하는 강원도 철원, 김화 지역의 사람들 또한 그 조성 집단이었으며, 경기도 연천 지역의 피난민도 함께 이주해왔다고 전한다. 마을 일대에 폭격이 있을 것이라는 미군의 소개(疏開) 명령으로,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미군 트럭에 올라타 피난길에 오르니, 오늘날의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였다. 당시 150가구가 이주했으며, 휴전 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차례로 이주하여, 약 55가구 정도가 남게 되었다.

당시에는 피난 시 가지고 온 것이 없어 미군이 전해주는 구호물자로 연명했다. 피난민들은 생계를 위해 염전을 만들고자 했고, 등짐에 흙을 날라 남양만 바다에 약 880m에 달하는 제방을 쌓았다. 피난민들은 바닷물을 막아낸 자리에 염전을 만들어냈고, 당시 만들어진 제방은 현 13만 평에 이르는 염전 지대를 여전히 지탱하고 있다.

공생염전 조성 초기, 당시 고된 노동의 모습을 미군 측에서 촬영하였다. 이는 다큐멘터리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 (1958)’이다. 현재 한국영상자료원 측에서 해당 영상이 담긴 테이프를 소장하고 있다.

1) 『삼국유사』 권 제 3 탑상 제4편, 삼소관음(三所觀音)과 중생사(衆生寺)

2) 『삼국사기』 권 제 17 고구려본기 제 5 미천왕 조

3) 『승정원일기』, 고종 7년 10월



공생염전 전경 (직접 촬영)

2.1.3 공생염전의 특징

공생염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염전 설립 당시의 특수한 노동형태에서 기인한다. 함께 노동력을 규합해 만들어진 염전에서, 피난민들은 자치조합을 결성했다. 당시 만들어진 조합명은 '자치난민공생조합'으로, 공생(共生)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했다. 소금창고 1동을 여섯 명이 공동소유하고, 할당된 염전을 공동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현대에도 6명이 창고 1동을 공유하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데, 외지로 나간 주민은 현지 염부에게 자신 지분을 임대하고 연마다 소금 천 가마를 받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공생염전의 바닥은 장판을 이용하는 타 염전과 달리, 옹기 조각-타일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옹기판염은 장판 염전에 비해 노동력을 더욱 요구하며, 생산량은 비교적 적다. 하지만 갯벌과 바닷물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청결한, 맛좋은 소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공생염전 12호 이순용 씨의 모습과 공생염전의 모습 (직접 촬영)

2.1.4 공생염전의 현재

150가구가 이주하여 만들어낸 공생염전은, 현재 7개 가구만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 속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던 경기·인천권의 염전사업은 간척사업과 함께 점차 자리를 잃게 되었고, 산업화로 인한 공단 난립, 주거단지화로 공공염전을 제외하면 사실상 경기만 염전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공생염전 조차도, 값싼 중국산 소금과 국내 공장형 소금 생산, 브랜드 가치에 대항하지 못해 차례로 폐업을 선언하고 있다. 염전을 두고 떠나 관리되지 않은 폐 염전에는 바닷물 대신 붉은 함초가 가득 피어있다.



2.2. 사례 조사

2.2.1 신안 증도 소금박물관



소금박물관 외관

2007년 개관한 신안의 소금박물관은 1953년 조성된 신안 태평염전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소금창고를 개조하여 박물관으로 조성하였으며 각 테마별로 전시실을 배치했다. 선사시대 맘모스가 소금을 찾아 움직였다던 사실에 착안한 전시실을 시작으로, 인류가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한 때의 기록, 태평염전의 조성 과정 등을 시대 순서대로 배치해두었다. 또한 소금과 관련된 동서양 인물들 이야기, 각 나라들의 소금 관련 제도와 정책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평양 감사보다 소금장수’(별 볼일 없는 관리보다는 소금장수가 낫다), ‘소금 먹은 놈이 물 견다.’(죄 지은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는다) 등의 소금과 관련된 속담을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되어 있다.



신안 증도 소금박물관 전시 현황 (출처-신안 증도 소금박물관)

전시 이외에 소금 채취 과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소금밭체험장을 인근에서 운영하기도 한다. 소금동굴이라고 하여, 벽과 천장 등을 소금으로 조성한 공간에서 미세한 소금 입자를 흡입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테라피 시설 또한 준비되어있다.

2.2.2. 영광군 염산면 두우권역 하늘소금 비단갯벌 마을

전남 영광군 염산면에 위치한 농어촌마을로, 인근 갯벌과 염전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을 테마로 삼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을 콘텐츠의 모토로 하며, ‘맘모스 로드’ 라는 이름으로 염전에서의 직접 체험활동을 제공함과 동시에 갯벌에서 씨름이나 기마전 등의 놀이를 하도록 한다. 갯벌에서의 놀이체험을 통해 천일염을 상품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염전 체험장 인근에 천일염 홍보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천일염을 이용한 짬질방도 함께 조성하는 등 휴식공간을 함께 마련하였다.



비단갯벌 마을 체험 현황 (출처-영광군농어촌교육체험협의회)

2.2.3. 2018 공예·식문화 특별전 ‘소금-빛깔·맛깔·때깔’

2018년에 개최된 공예·식문화 특별전 ‘소금-빛깔·맛깔·때깔’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국립민속박물관의 공동 주관으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일전에 진행되었던 국립민속박물관의 ‘호모 소금 사피엔스’ 연계전이기도 하다. 세 가지 깔 - 빛깔, 맛깔, 때깔을 주제로 한 한국의 소금과 식생활 문화, 그리고 이를 담아내는 공예를 소개했다.



전시장 곳곳에는 소금이 흩뿌려져있어, 마치 관람객이 염전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안긴다. 길을 따라 나가면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주제로 전시관이 마련되어있다.

‘소금-빛깔’ 섹션에서는 소금, 음식, 공예를 만드는 인간의 손에 주목한다. 노동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과정을 영상으로 표현해냈다.

‘소금-맛깔’ 섹션은 절기에 따라 장 담그기, 생선 염장, 젓갈, 김치 등 발효와 절임으로 대표되는, 한국 전통 식문화와 공예의 아름다움을 사진 설치를 통해 표현했다.

‘소금-때깔’ 섹션은 소금을 재고 담는 기능 뿐 아니라 소금의 빛깔과 정제된 속성과 닮은 미학적 해석이 담긴 다양한 장르의 공예 작품들이 전시된다. 낡고 오래된 고가구와 민속품에 크리스탈과 광섬유 등을 장식하여 소금의 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오브제 작품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다양한 장르의 공예작가들이 소금을 주제로 제작한 작품들이 함께 전시되었다.

야외전시장은 한옥을 배경으로 조성하였는데, 푸드스타일리스트를 초청해 옛 상차림을 복원하여 맛의 원형인 소금과 식사를 표현해냈다. 또한 전시기간 동안 관람객들이 시식할 수 있는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해두었다. 해당 체험 식품은 육포, 어란과 술, 채소와 소금 샐러드, 감자찜, 장떡 등 소금을 이용한 전통식품을 대상으로 했다.



소금, 빛갈 맛갈 때갈 전시 장면 (출처-국립민속박물관)

3. 공생염전,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

3.1. 사업 계획 제안

‘공생염전,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은 공생염전을 모티브로 한 제작 프로그램, 아카이브 및 전시관 운용공생염전의 탄생과 노동의 가치를 그린 주민 참여형 연극 프로그램, 예술가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술 경연·체험 등의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종합한 공생염전 및 인근 마을 활성화 방안이 곧 ‘공생염전,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이다.

3.1.1. 공생염전 모티브 굿즈 제작 키트 ‘내손내만’

공생염전에서 활동하는 염부들은 대내외 수요가 적어지면서, 점차 폐업을 선언해 그 흔적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이 브랜드의 부재로 인한 홍보 효과 미약, 제한된 유통 형태 때문이다. 현 공생염전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금은 10~20kg의 단위로, 일반 관광객들이 구매함에 있어서 부담을 느낀다. 이에 판매용 소금의 소량 유통이 필요하며, 이를 담을 보관용 케이스의 디자인과 브랜드 디자인 또한 선정이 필요하다. 또한 염전의 부차적 소득으로 지목되는 염전체험행사는 그 체험 대상이 보통 청소년 계층에 국한되어있어 일반인 시민들의 접근성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염전체험 대상 확보와 브랜드 구축을 점검하고, 이를 타개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MZ세대로 불리는 현 소비 주체는 소비대상의 효용성만이 아닌, 소비와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하여 집단보다는 개인중심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다. 이런 세대 속에서, 현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다. ‘내돈내산’이라는 말로, ‘내 돈으로 내가 산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인터넷 방송에서 소위 광고사실을 숨기고 평을 좋게 내리는 식의 폐단이 연달아 드러나자, 그 도덕적 해이, 모순에 환멸을 느낀 이들이 그들과는 달리 자신은 외압에 휘둘리지 않음을, 주체적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영감을 받아, ‘내손내만’이라는 타이틀로 공생염전을 모티브로 한 굿즈 제작 사업을 기획하고자 한다. 이는 곧 ‘내 손으로 내가 만든 소금’이라는 말의 준말이 되는 것이다.

현 화성시 문화재단에서는 ‘서로서로 예술키트’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울을 해소할 수 있는 간단한 제작용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원데이 클래스로 시민들을 초청해 문화·공예 수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공생염전을 상징화한 예술품 - 나아가 경제성과 효용성, 미학적인 가치를 가진 예술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공생염전 디오라마(전경을 묘사한 장식품), 카드 지갑, 공생염전에서 나온 소금을 담은 케이스, 전통생활도구인 키의 미니어처 장식품이다. 이 제작은 지역 예술인에게 디자인을 맡김으로서, 그 특별한 가치를 배가시키도록 한다.

이 중 소금 케이스는 현 사회에서 개별적인 상품으로 내놓을 가치가 다분한데, 기본적인 컨셉은 다음과 같다. 현 공생염전에서는 10~20kg 분량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반해, 향후 유통의 다양성을 함께 추구하고자 1~2kg의 소량으로 담아갈 수 있는 크기로 설계한다. 기본적인 외형은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옹기의 형식을 따서 만들며, 비교적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한다.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여 이동과 보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소금 보관용을 넘어 장식품 그 자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위 현 사회에서 ‘굿즈’로 불리는 일정 인물-캐릭터를 상품화하는 현상을 참고하여 공생염전을 캐릭터화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한다. 이렇게 기획한 상품들은 DIY, 직접 제작 가능 형태로 전달하되, 동시에 ‘공생염전 굿즈’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를 개설 혹은 공생염전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마련한다. 또한 체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SNS 후기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추가 사은품 증정을 약속한다. 이에 참가자들의 후기를 통해 다른 시민들 또한 공생염전을 찾아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동시에 지역 홍보를 야기하도록 한다.

○ <공생염전 체험대상 점검 및 확보> 계획안

구분	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생염전 모티브 굿즈 제작 키트 ‘내손내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계층으로 국한되어있는 염전 체험 대상 및 관심의 폭을 넓히고자 함. ▪ 현 문화재단의 사업 중 키트 전달 사업에서 공생염전을 소재로 한 키트를 제작, 예술성을 가미해 공생염전의 브랜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함.
세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손내만’ 이라는 신조어를 응용한 염전 체험 프로그램 홍보 실시 ▪ 체험 과정은 이전과 동일하게 하되, 체험 프로그램 이후 생산한 소금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옹기형 ‘굿즈’에 담아 전달함. ▪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SNS 이벤트를 통해 추가 사은품 증정.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블루 현상, 즉 대외활동 지양을 통한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치유적 활동임을 함께 전달하도록 함. ▪ 소금을 가져가는 ‘굿즈’의 경우 지역 예술인에게 디자인, 제작을 요청하여 그 상품의 특수성을 더욱 배가시키고자 함.

3.1.2. 공생염전 아카이브 전시관

선사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내 소금 생산의 형태와 관련 일화 등을 사료와 구술을 통해 전시하도록 한다. 전시에 들어갈 예시로, 삼국사기 고구려 미천왕 조의 소금장사 이력과 삼국유사의 소금을 진상했다는 기록 등이 있겠다. 특히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기록에서는 전통 염업의 형태인 자염, 불로 조리거나 굽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어, 1907년 도입 후 현대에 이르는 천일염과 어떤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소금과 관련한 역사에 대해 전시하면서, 공생염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사 또한 함께 전시하고자 한다. 그 취지로 1958년에 촬영된 다큐멘터리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를 편집하여, 전시관 한 편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공생염전 지역 염부들에 대한 영상 촬영 및 구술 인터뷰를 진행, 염전 작업에 이용하는 도구들을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한 생활사 전시도 함께 진행한다.

전시관 한 편에는 소금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진열해두며, 소금이 쌓여있는 창고의 모습을 재현해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상기 언급했던 소금 예술가, 모토이 야마모토의 예술작품 사진과 함께 여타 소금 예술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 관광객에게 있어 새로운 상품 또한 중요하다. 전시관 내의 공간을 이용해, 소금을 이용한 입욕제 등의 뷰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고, 소금 아이스크림이나 사탕 등의 식제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생염전 전시관> 계획안

구분	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금의 역사를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료와 여타 자료를 통해 전시함. ▪ 거시적인 역사뿐만이 아닌, 공생염전에서 생활했던 이들의 생활사적 요소를 함께 전시하여 미시적 역사 또한 함께 보전하고자 함.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류가 소금을 얻어온 역사에 관한 교육적 콘텐츠를 제공해, 소금 자체에 대한 흥미를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예로부터 고품질 소금의 생산지였던 화성 서남부의 역사성을 제시하여 지역 가치를 대내외 홍보하기 위함.
세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려진 소금창고를 개조하여 전시관으로 활용 ▪ 염전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전시 ▪ 소금 소재의 예술품 또한 실물 혹은 사진의 형태로 함께 전시함. ▪ 실제 염전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들을 기증 혹은 복원하여 전시함.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전시에 국한되지 않고, 별도 부스를 만들어 관련 도서를 판매하거나, 소금을 활용한 식용품, 미용품 등을 판매하도록 함.

3.1.3. 연극 교실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

이미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 (1958)'이라는 다큐멘터리가 공생염전의 탄생을 재현, 당시 염부들의 고된 노동을 화면에 담아냈지만 이는 자칫 현대인들에게 이질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영상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영상자료원 측에 직접 요청해야하는 등 일반 대중에게 불편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의 내용과 현존하는 공생염전 1세대의 후손들의 구술 내용에 기반한 연극을 기획하고자 한다.

연극의 주무대는 현재 염업을 중지한 폐염전으로 하며, 다큐멘터리 촬영 당시의 이순용 선생의 증언을 참고하여 독 모형을 만들고 파괴하는 등 현장감을 배가시킨다. 폐염전을 시연의 장소로 지정함에 따라, 방치되어있는 지대를 재활용함과 동시에 인근 지역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위 연극 콘텐츠는 단발성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현장에서 시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재활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해당 콘텐츠는 지역민 교육 프로그램-결과물 실현-대내외 지역 홍보의 단계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먼저 콘텐츠 기획 대상 지역은 화성 서부의 공생염전 일대, 서신면이다. 해당 지역민들의 분포 상황을 살펴보면, 이전 염전 활동을 행하던 염부들은 상당수 폐업을 선언하고 은퇴하거나, 다른 지역민들과 함께 농사 혹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인다. 서신면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등교하는 청소년층은 각 학교당 100명 내외로, 적지 않은 수가 확인되나 학생들 역시 성인계층과 마찬가지로 여타 문화생활의 여건이 없어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에 염전 인근, 서신면 일대 지역민들이 연령을 막론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제안하고자 한다.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 지역 예술가 초빙을 통한 연극 교실을 만들도록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 1~2회, 교육 일정은 보다 많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시간대로 선정하도록 한다. 교육대상 인원은 조건에 차등이 없도록 하고, 대신 청소년부/성인부로 나뉘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주말에 특별한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느라, 무료함을 느끼는 청·장년 계층에게는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취미활동, 자기계발의 여건이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 계층에게는 염전이라는 지역의 특수함에 대한 흥미 유발과, 연극 예술이라는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예술가에게는 교육을 통한 일거리를, 인근 지대 염부들은

연극의 소품과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금과 염전을 관리 및 제공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지역민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은 물론, 각자의 자기계발 및 진로 창출을 꾀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다음 단계는 결과물 실현 및 대내외 지역 홍보다. 꾸준한 지역민의 교육 참여로 실력을 키운 뒤, 목표물인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의 연극을 시연하도록 한다. 그 배경은 마을 규모의 축제에 하여 폐염전에 지역민들을 초청, 진행하도록 한다. 시연 내용은 앞서 언급한, 다큐멘터리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한 공생염전의 탄생기와 값진 노동을 그려내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이의 연극 실황은 촬영 및 동시 중계하는 것으로 하여, 화성시 SNS, 지역 언론을 통해 타 지역민도 함께 문화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연 1회, 농번기에 소규모 마을 축제 개념으로 연극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꾸준한 홍보를 통해 외부 지역민의 직접 관람 또한 독려해 공생염전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청소년부 중에서 고등학생 참가자의 경우, 한국연극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청소년연극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기지도와 시나리오 각색을 지원한다. 해당 대회 경우 고등학생을 참가자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고등학생 연기자를 선별하여 추가 연기 지도를 실시한다. 공생염전이 위치한 서신면 내에는 고등학교가 없으나 인근 송산면에 송산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송산면 역시 간척사업 이전에는 염전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염전이라는 소재를 공유하여 지역 간 예술 연대를 도모하도록 한다. 장차 마을 축제가 행수를 거듭하고, 꾸준한 연기지도로 각 연극대회에서도 수상하게 된다면, 공생염전의 브랜드 가치 역시 함께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내 서신면 및 화성서부 일대는 낙후된 공업지대가 아닌 염전과 연극의 고장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또한 위 과정을 함께 아카이브로 남겨, 지역 예술 콘텐츠의 성공적 예시로 전해질 수 있도록 출판, 다큐멘터리로 촬영하는 방식을 함께 진행한다.

실제 염전을 배경으로 하여, 고된 노동을 재현하는 연기자들의 모습을 통해 관람자는 잊고 있던 노동의 가치를 되새길 것이다. 최근까지도 사회에서는 ‘몸 쓰는 일’을 경시하는 풍조가 자리 잡고 있다. 소위 ‘공부 못하면 저런 일 한다.’는 등의 아이를 향한 편견, 과도한 사교육 풍조가 그 예시다. 본 연극은 가진 것 하나 없는 피난민들이 천리타향에서 두 손으로 삶의 터전을 일구는 당시 상황을 생생한 연기로 재현한다. 이 과정 속에서 관람객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공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보다 본질적인 물음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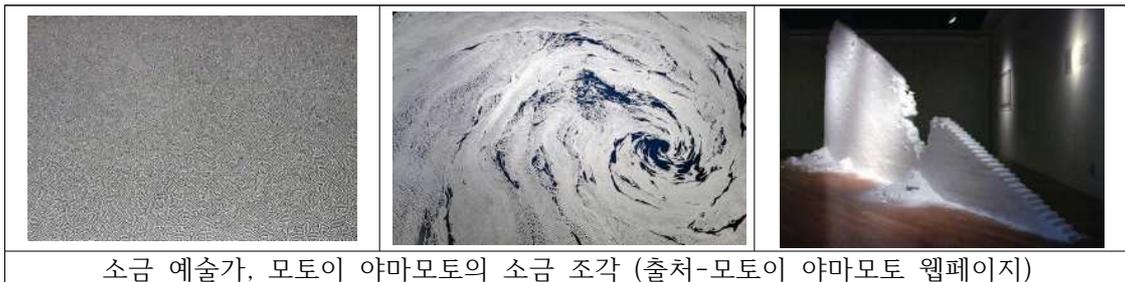
○ 연극 <공생염전,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 계획안

구분	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큐멘터리 <바다를 밀어낸 사람들>에서 공생염전의 탄생을 연출 및 기록한 것에 착안, 공생염전 조성 당시의 치열했던 모습과 협동, 공생의 가치를 연극으로 표현함.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픈 역사적 배경, 공생·협동이라는 인간성을 중시한 공생염전의 존재를 대내외로 홍보하고자 함. ▪ 방치된 염전의 활용 및 인근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함. ▪ 천대받는 노동에 대한 재조명을 추구 ▪ 지역민의 자기계발,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제공, 청소년의 자아탐색 ▪ 차후 외부 지역민 유입 독려
세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전공의 지역 예술인을 초청, 서신면 일대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연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함. ▪ 방치되어있는 폐염전을 연극 현장으로 재활용하고자 함. 인근에서 독 모형을 만들고, 파괴하는 등 현장감을 배가시킬 수 있는 연출을 고안함. ▪ 주기적(분기별)인 마을 축제 개념으로, 수료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시연할 수 있도록 구성함.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사태로 비대면 문화콘텐츠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 연극 촬영을 함께 진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중계하도록 함. ▪ 지역 예술인의 경우 화성시 노작홍사용문학관 산하 시민극단 '산유화'와의 협업으로, 지역민 연기 교육 및 지도를 하는 방법 또한 고려함.

3.1.4. 소금 예술 축제

소금 예술 축제라는 타이틀로, 소금을 소재로 한 조각이나 회화 등을 현장에서, 각지 예술인들의 새로운 시도를 독려하고자 한다. 현 공생염전의 비어있는 폐염전을 예술품 설치 무대로 지정하고, 예술 소재인 소금은 공생염전에서 사들여 지급한다. 이를 통해 현 공생염전이 처한 소금 판매 부진에 대한 위기, 대중들의 염전에 대한 관심, 조명 받지 못한 예술가들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축제에는 예술인들을 위한 전문 경연대회와 함께, 일반 시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부 대회를 함께 진행한다.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금 예술가로, 일본의 모토이 야마모토가 있다. 그는 동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로 소금을 소재로 여러 가지 예술적 시도를 해왔다. 바닥에 소금을 흩뿌려놓아 미궁의 형태를 표현하거나, 폭풍을 그리고, 무너지는 계단을 표현했다. 그런 그가 작품 전시가 끝나면 으레 하는 일이 있으니, 자신이 사용했던 소금을 관객들과 함께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본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형태의 의례는 저마다 가진 슬픔의 내려놓음과 함께 생명의 순환을 연상하게 한다. 생명력을 신앙으로 삼은 고대의 여신 숭배 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죽음의 경험이다.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이며, 삶의 긍정이다. 특히 아이들은 놀이를 할 때, 재료로 무언가를 만들고는 원래의 모습으로 해체하는 일을 당연하게끔 여긴다. 이는 새로운 탄생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자라나며, 새로운 탄생보다는 눈앞의 목표에 급급하게 된다.



소금 예술가, 모토이 야마모토의 소금 조각 (출처-모토이 야마모토 웹페이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소금 예술 축제에서 제작된 예술품들 또한 다시 바다로 돌려 보내도록 한다면 관객과 예술가 자신에게도 인상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예술엔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것을 전달하고, 정해놓은 자신의 틀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장하리라 전망한다. 이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도 만들어놓은 예술품을 해체하며, 목표에 집착하던 자신을 내려놓고, 사회 속에서 지친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끔 한다.

○ <소금 예술 축제> 계획안

구분	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금을 소재로 한 예술가들의 예술 경연 및 일반 대중의 예술 참여를 독려하는 예술 축제를 개최함.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생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을 경연에 사용하도록 하여, 어려움을 겪는 염가에 수요를 제공하고자 함. ▪ 참여자가 소금의 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홍보효과를 얻고자 함. ▪ 예술의 탄생과 해체, 부활을 손수 행하게끔 하여, 참여자의 내적 성장 및 치유를 도모함. ▪ 소금예술 특화구역으로 거듭나기 위함. ▪ 방문객 유치
세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주간에 맞추어 예술 축제를 실시, 예술가들 간의 경합과 함께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부 대회를 개최함. ▪ 예술가들의 작업 현장을 옆에서 바라보며 영감을 얻기도 하고, 이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표현해보게끔 장려함. ▪ 축제에서 사용되는 소금은 공생염전 생산 소금을 사용하도록 함. ▪ 축제가 끝난 뒤, 만들어낸 예술품은 스스로 /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해체하여 바다로 돌려보내는 의식을 실시함.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온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가을에 실시함. ▪ 예술가들의 경연과 일반부 경연 모두 시상식을 개최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자부심과 흥미를 유발하게 함.

이옥과 화성

「이옥의 문학 작품, 오디오북으로 꽃피다」

1. 기획 의도
 - 1.1. 기획 배경
 - 1.2. 기획 목적
 - 1.3. 기대효과

2. 사전 조사
 - 2.1. 이옥
 - 2.2. 사례 조사
 - 2.2.1. ‘오디오북’ 관련 문화프로그램
 - 2.2.2. ‘독서 릴레이’ 관련 문화프로그램

3. 사업 계획 제안
 - 3.1. 오디오북 ‘시민이 만드는 이옥 이야기’
 - 3.2. 이옥 문학 릴레이
 - 3.3. 이옥 문학관

1. 기획 의도

1.1. 기획 배경

이옥(1760~1815)은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에서 태어난 조선시대 문인이다. 이옥은 부(賦), 서(書), 서(序), 발(跋), 기(記), 논(論), 설(設), 해(解), 변(辨), 책(策), 전(傳)과 같은 전통적 장르는 물론, 문여(文餘), 이언(理諺), 희곡(戲曲)과 같이 실험성 짙은 장르까지 두루 창작하였다. 지금도 그의 작품은 솔직하고 섬세하다고 표현된다. 이옥은 자신의 문학세계나 글쓰기 방식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소외된 처지를 의식했던 이옥은 심 없이 글쓰기에 열중하고 치열하게 새 장르를 탐구했다. 이옥의 존재로 인해 우리나라 소품 문학은 질과 양의 양면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옥의 문학작품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고,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옥 문학작품의 접근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1.2. 기획 목적

- 가. 이옥의 문학 작품을 대중에게 알리고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나.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를 배경으로 하는 이옥의 작품을 사업의 주요 소재로 사용하여 화성시 서남부권의 정체성 및 지역성을 구체화 할 수 있다.
- 다. 화성시민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지역 사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적 생산 활동이 가능한 구조를 형성한다.
- 라. 이옥에 관한 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시민들이 관련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상호작용하며 지역 사회의 재생을 촉진할 수 있다.

1.3. 기대효과

- 가. 이옥의 문학 작품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해 누구나 문학 작품을 쉽게 즐길 수 있다. 더불어 번역이 이뤄진다면 다문화가정이나 해외에도 작품을 보급할 수 있다.
- 나. 화성시민이 콘텐츠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화성시민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을 수 있으며, 화성시민 간의 소통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다. 이옥의 문학 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디오북'이나 '독서 릴레이' 형식의 새로운 독서법을 제시해 미디어와 플랫폼의 다양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2. 사전 조사

2.1. 이옥(1760년~1815년)

1760년 영조 36년에 태어났다. 일찍부터 과거 공부에 매진하였으나 매번 고배를 마시고 1790년 드디어 과거의 1차 관문인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성균관 동재로 들어가 대과 공부를 시작하지만 정조 문체반정(文體反正)으로 인해 타락한 문체를 쓰는 문체의 인물로 거론되었다. 반성문의 글을 하루에 50수씩 지어 문체를 뜯어 고친 연후에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별을 받는 이후에도 정조로부터 문체가 이상하다하여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벌인 정거(停擧)를 당하였다가 군역에 강제로 복무케 하는 충군(充軍)의 벌을 두 차례나 받았다. 이후 이옥은 잘못된 글을 짓는다는 낙인이 찍혀 과거시험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낙향하여 지내다가 1815년 56세로 사망하였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걸쳐 남양도호부 송산에 거주하였던 인물인 이옥(李鈺)의 「백운필」을 중심으로 당시 농촌생활의 일상, 농법 정리의 특색, 그리고 농업생산의 시장 지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옥은 송산에서 농촌생활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직접 농업과 관련된 종수(種樹), 화훼(花卉) 재배를 실행하기도 하고, 농민들의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 방식을 내면화하기도 하였다.⁴⁾

2.1.1. 저서

이옥의 저술은 친구인 김려가 교정하여 『담정총서(潭庭叢書)』 안에 수록한 11권의 산문과 『예림잡패』에 시 창작론과 함께 남긴 이언(俚諺) 65수가 전한다. 『담정총서(潭庭叢書)』 안에 수록한 11권의 산문은 각각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 「문무자문초(文無子文鈔)」·「매화외사(梅花外史)」·「화석자문초(花石子文鈔)」·「중흥유기(重興遊記)」·「도화유수관소고(桃花流水館小稿)」·「경금소부(絳錦小賦)」·「석호별고(石湖別稿)」·「매사첨언(梅史添言)」·「봉성문여(鳳城文餘)」·「묵토향초본(墨吐香草本)」·「경금부초(絳錦賦草)」 등이다.

『예림잡패』에는 ‘3난(難)’으로 나누어 시를 창작하는 이론을 설명하였다. 또 4조(調)로 나누어 각 조에 10여 편씩의 이언을 창작했는데 조선 후기의 시풍 경향과 밀착되어 민요풍의 정서를 담았다. 속어를 사용하여 남녀 사이의 애정 또는 시집살이의 고달픔 등을 그려내고 있다. 이밖에 가람본 『청구야담』에서는 「동상기(東廂記)」를 그가 지었다고 했다.

4) 「조선 후기 남양도호부의 농촌생활과 농법·농업생산의 특색 - 이옥(李鈺)의 백운필(白雲筆)을 중심으로」(2020), 엄정섭, 한국고전연구, p321

2.1.2. 이옥 생가 터(추정)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17-1(이봉산 서길)

여러 작품과 기록에 따르면 이옥은 지금의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매화동에 살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2015년,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이옥의 생가터를 찾고자 지화리에 방문했다. 이옥의 작품에 묘사된 것처럼 마을의 연못을 열고 도로를 포장했다는 점, 버드나무 고목이 벌목되었다는 점에서 미루어보아 ‘지화리 217-1번지’로 생가 터를 예상했다. 이옥의 작품 <효반안인한거부(效灌安仁閑{居願})>는 이옥이 살았던 집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 있다.

선인이 남긴 낡은 집 / 나라의 남쪽 기내(腦內)에 있는데
/ 집은 이 한몸의 노숙을가릴 만하고 / 전답은내 식구의
주립을 구할 만하네 / 산기슭에 기대어 담을 두르고 /
바다를 향한 사립문 닫아두었기에 / 사람의 왕래는 드물고 /
세상의 시비와는 떨어져 있네 /
그 남쪽에는 / 바다에 걸쳐 진 화랑젠이 설치되어 /
전선(戰船) 백 척이나 되는데 / 나각을 불어 새벽을 깨우니 /
다섯 가지 병기가 산처럼 쌓여 있네.
그 북쪽에는 / 목도(木道)가 물을 따라 둘러 있는데 /
섬들은 구름에 연해 있고 / 오는 옷대가는 옷에 /
뱃노래 서로 들린다네.
산은 외몽의 호를 전하고 / 땅은 도화원에 가까운데 /
한 갈피를 차지하여 삶의 터 마련하고 / 두세 집 어울려 마을을
이루었네 / 이에 네모난 못을 파고 / 또 작은 후원을 만들고

<효반안인한거부(效灌安仁閑{居願})> 중

또, 이옥의 작품 <장수피>를 통해 이옥이 살았던 곳에 바다가 들어왔으며 고래가 떠밀려온 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신년(1800) 가을에 마산 사람이 나의 집 전장의 곡식을 운반하기 위하여 배를 끌고 면양에 가서 옹포 가까이 정박했는데, 밤에 조수가 막 떨어지자 갑자기 여러 마리의 소가 숨 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 머리에서 꼬리까지 대략 십여 장이 되며, 비늘이 없이 검고 수염은 창 같고 눈은 사발 같은데, 바닷가의 일꾼과 뱃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장수피(범고래)라고 하였다. 기름이 많고 육질도 맛있었다. 그 등에 올라 도끼로 잘라내니 가죽은 깊이만도 반자나 되는 것이 살찐 돼지고기의 막과 같고, 속살은 하얗고 기름져 닭고기와 같았다. 삶아보니 과연 맛은 좋은데 그 껍질은 모두 기름이었다. ...

<장수피> 중



출처: 향토문화연구소

이옥 생가 터 추정지(2015년)



출처: 네이버 지도

이옥 생가 터 추정지(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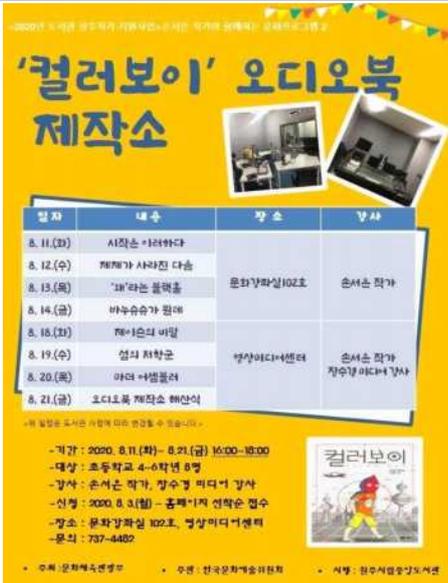
2.2. 사례 조사

2.2.1. '오디오북' 관련 문화프로그램

① 디지털북센터 'KPIPA'

기간	상시
주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용	디지털북센터인 'KPIPA'를 운영해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디지털 산업을 지원한다. 특히 오디오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녹음스튜디오와 편집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및 내레이터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포스터	 <p>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p>

② 「컬러보이」 오디오북 제작소

기간	2020년 8월 11일 ~ 2020년 8월 21일
주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내용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상주작가인 손서은 작가의 「컬러보이」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한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오디오북을 직접 제작함으로써 창의력 향상과 즐거움을 알게 한다.
포스터	 <p>출처: 원주시립중앙도서관</p>

③ 수성구가 대구지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리딩북' 서비스를 도입한다. 29일 수성구에 따르면 올 2월호 수성소식지 '명품수성'을 통해 시각장애인 등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지역 생활정보 등에 대해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리딩북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01/30 경북도민일보)

④ 수원시청소년재단 광고청소년수련관은 최근 수원문화원에서 발간한 도서 '수원의 별별거리'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을 제작하여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측에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략) '수원, 소리로 담다' 프로그램은 수원의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수원지역의 과거·현재 모습을 청소년들이 소리로 담아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작하는 목소리 재능기부 봉사 프로그램이다.

(2019/01/19 중부일보)

⑤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 청소년들이 생활금융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초·중·고 생활금융 교과서를 점자도서와 오디오북(낭독도서)으로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2019/01/17 경기일보)

2.2.2. '독서 릴레이' 관련 문화프로그램

①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 릴레이'

기간	2019년 6월
주최	송파글마루도서관
내용	각 도서관에서 선정한 도서를 대출 후 나눠주는 활동지를 작성하여 책을 반납할 때 자료실에 제출한다.
성과	독서와 토론 활동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시민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토론 문화 확산, 세대와 계층을 포괄하는 소통의 장 마련한다.
포스터	<p>출처: 송파글마루도서관</p>

② 올 해의 한 책(One Book) 독서릴레이

기간	2019년 4월 14일(일) ~ 2019년 9월 20일(금)
주최	제주시 우당도서관
내용	3인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독서릴레이를 진행한다. 도서관 측에서 첫 주자에게 도서를 전달한 뒤, 팀 내에서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진행한다. 완료 후 릴레이노트 및 사례공모를 제출한다.
성과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발적인 독서를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포스터	<p>출처: 제주시 우당도서관</p>

3. 사업 계획 제안

3.1. 오디오북 ‘시민이 만드는 이옥의 이야기’

○ 문화콘텐츠 소개

전문 성우나 저자가 직접 책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오디오북(Audio Book)’은 흔히 귀로 듣는 책이라고 불린다. 음성 효과, 목소리 클립, 음악을 포함한 소리들의 단편적인 모음들인 ‘오디오북’을 생산한다. 과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 자료로 이용되었지만, 디지털 산업이 발달한 현재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콘텐츠이다. 특히 현재 출판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기술과 만나 책을 소비하는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오디오북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옥의 문학 작품은 단편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기 용이하다. 오디오북 제작 과정에 화성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나레이션 교육, 녹음 교육 등 및 장소를 제공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로얄X파크’나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화성시미디어센터’의 공간과 시설, 기자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오디오북 ‘시민이 만드는 이옥의 이야기’> 계획안

구분	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옥의 작품을 바탕으로 오디오북을 기획·제작한다. ▪ 오디오북 제작 과정에 화성시민이 참여한다. 오디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부터 실습까지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오디오북 제작은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로얄X파크’ 또는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화성시미디어센터’의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 이옥 작품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화성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각 콘텐츠를 제공한다. ▪ 오디오북을 다양한 언어로 제작해 타 지역 외에 해외에서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인 오디오북 제작 교육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 오디오북을 만들며 시민 소모임이 구성될 수 있고 지역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 화성시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정기적으로 오디오북으로 발행해 작품집을 만들 수 있다. ▪ 오디오북 제작의 형태에서 나아가 글쓰기 교육, 읽기 교육, 토론 교육, 영상 제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p>세부 진행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오디오북의 의미와 활용방안에 대해 이해한다. ② 낭독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해 낭독 기술을 익힌다. ③ 오디오북 녹음과 수정 기술을 배운다. ▪ 수강 대상 오디오북 낭독법을 배우고,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하고 싶은 화성시민 ▪ 교육 장소 화성시 팔탄면의 '로얄X파크'와 화성시 동탄의 '화성시미디어센터' ▪ 교육 일정 1강당 2시간 씩, 총 12회 강의 ▪ 교육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 제작 도서 이옥 「백운필」 ▪ 교육 강사 전문 성우 또는 북텔러리스트 ▪ 교육 커리큘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오디오북 낭독의 개념 이해 ② 나의 목소리 찾기 ③ 책 분석의 필요성과 방법 ④ 내레이션의 이해 ⑤ 기초 훈련(발성, 발음, 호흡훈련) ⑥ 목소리 연출 ⑦ 실전 리딩과 피드백 ⑧ 오디오북 녹음법 및 편집
<p>추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오디오북으로 재생산할 수 있다. ▪ 오디오북의 특성을 살려 손과 눈이 자유로운 공감각적(시각, 청각)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p>예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쥐와 코끼리> 천하의 짐승 중에 코끼리보다 큰 것이 없고, 쥐보다 작은 것이 없다. 쥐가 능히 코끼리를 해칠 수 있으므로 코끼리는 쥐를 매우 무서워하여 쥐구멍만 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쥐 소리만 들으면 떨었다. 아,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큰 것을 해칠 수 있으므로 군자는 크다고 하여 작은 것을 홀시하지 않고, 소인은 작다고 하여 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작품은 이옥이 쥐와 코끼리를 보고 쓴 글이다. 1분 미만의 오디오 클립을 제작할 수 있다.

3.2. 이옥 문학 릴레이

○ 문화콘텐츠 소개

‘이옥 문학 릴레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문화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독서 릴레이이다. 정해진 주기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이옥의 단편 글을 화성시민에게 배포하여 부담 없는 독서를 진흥한다. 참여자는 도서관에 찾아가지 않아도 선물처럼 문학 작품을 제공 받고, 화성시문화재단에서 구축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능동적인 독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는 각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놓는다.

○ <이옥 문학 릴레이> 계획안

구분	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옥의 문학 작품을 남녀노소 읽기 쉽게 각색하여 참여자에게 전달한다. ▪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전달 받은 이옥 작품을 읽은 참여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각자 공유 독후 활동을 진행한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는 각 연령층에 따른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작품을 읽고 상상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이미지 파일로 게시한다. 청년층은 이옥 작품을 가지고 온라인 문학 토론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독후감 제출, 작품 각색 등이 있다.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와 관련된 이옥의 문학 작품을 재가공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 작품을 우편 및 메일로 전달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독후 활동을 진행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다. ▪ 비대면 문화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문화 예술을 공유할 수 있다.

<p>세부 진행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옥의 문학 작품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도록 한다. ② 비대면 공유 독후 활동을 진행하여 화성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참여 대상 화성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가족 단위 참여도 가능하다. ▪ 진행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화성시에 거주하는 일정 수의 참여자를 선발한다. ② 참여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작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소개(1부)’, ‘작품(1부)’, ‘공유 독후 활동 참여 방법 안내문(1부)’을 전달한다. ③ 참여자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독서를 한 후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 독후 활동에 참여한다. ▪ 모바일 축제 모바일 축제를 기획하여 모인 공유 독후 활동물을 시상하거나 소개할 수 있다.
<p>추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직관적으로 공유 독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참여자끼리 서로의 작품을 보고 ‘좋아요’ 표시나 짧은 댓글을 달며 상호작용할 수 있다.
<p>예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물총새> 내가 뜰 안에 작은 못을 파고 붕어를 기르는데, 때때로 물총새가 날아와 붉은 여뀌 안에 앉아 물고기를 엿보다가 물고기가 나오면 반드시 쪼아 먹는다. 때로는 몰래 물에 들어가 물고기를 물고 나오기도 한다. 그 모습은 꼬리가 짧고 부리는 길며 온몸이 푸른색인데 오직 가슴과 배, 두 겨드랑이가 옅은 붉은색이어서 매우 사랑스럽다. 이것이 바로 립(鵪)이라는 것으로 ‘어호(魚虎)’라 하기도 하고, ‘어사(魚師)’라 하기도 하고, ‘천구(天狗)’라 하기도 하고, 취벽조(翠碧鳥)’라 하기도 하며, 우리말 이름으로는 ‘쇠새’라고 한다. 그런데 <이야>의 광박 주에서 “부리가 붉고 턱밑이 하얗다”고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작품은 물총새를 보고 외형을 묘사한 구절이 있다. 이옥의 작은 못, 물총새가 날아와서 물고기를 쪼아 먹는 모습, 물총새의 외형 등 다양한 시각적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 <물총새> 작품을 화성시민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전달한다. 이 작품을 부모님과 읽은 초등학생 어린이는 공유 독후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다. 여러 프로그램 중 <물총새>를 읽고 떠오른 모습을 그린 후 찍어 올리는 ‘이옥 상상 그리기’ 콘텐츠에 참여한다. 초등학생 어린이는 자신이 그린 물총새 그림을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고, 또래 친구들과 댓글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3.3. 이옥 문학관

○ 문화콘텐츠 소개

‘이옥 문학관’을 건립해 문학사에서 가치와 업적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이옥 문학관’을 건립함으로써 화성 시민들이 이때까지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작가의 문학 세계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새로운 각도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옥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보존할 뿐만 아니라 작가와 작품에 이르는 학술적 기능도 담당할 수 있다. 체험과 상설 전시, 학술 연구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문학관을 만들어 화성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이옥의 고향이라고 추정되는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에 ‘이옥 문학관’을 준공해 송산면 지화리를 문학마을로 재탄생 시킬 수 있다.

○ <이옥 문학관> 계획안

구분	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옥 문학관을 준공해 이옥의 문학 작품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기존의 조용하고 정적이 흐르는 문학관이 아닌 누구나 체험하고, 소통하고, 실현할 수 있는 체험형 문학관으로 기획한다. ▪ 문학관에서 정기적으로 문학 행사와 공연을 열어 관람객이 꾸준히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산면 지화리를 문학 마을로 재탄생시켜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 이옥의 다양한 문학적 갈래를 구현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거점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세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옥 책 세상: 이옥과 관련된 책을 출판한 출판사들과 협업해 ‘이옥 책 세상’ 열람실을 열어 장서를 구축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옥의 작품을 읽어볼 수 있고, 이옥 작품을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 상설 전시: 이옥의 작품을 전면에 배치하고, 이와 관련해 디지털 체험, 오감 체험이 가능하도록 전시를 구성한다. ▪ 밤낮 놀이터 공연: 주기적으로 열리는 문학관 행사로 ‘음악 공연’, ‘그림자 공연’ 등을 진행한다. ▪ 이옥 문학제: 문학제를 개최해 백일장이나 독후감 대회, 낭독회, 시상식을 개최할 수 있다. 더불어 특별 전시 및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기획·진행할 수 있다.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문학관을 조성하여 ‘문학관에 놀러간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한다.

2.2. 문화콘텐츠 제안



송산면

「송산의 보물」

- '송산 지역 3.1 독립운동'과 메모리

1. 기획 의도
 - 1.1. 기획 배경
 - 1.2. 기획 목적
 - 1.3. 기대효과
2. 사전 조사
 - 2.1. 송산 지역 3.1 독립운동
 - 2.2. 송산중학교
 - 2.3. 사강시장
 - 2.4. 송산포도
3. 문화콘텐츠 제안
 - 3.1. 마을 해설사 양성
 - 3.2. 화성시 서남부권 메모리 아카이브
 - 3.3. 송산 기억 프로그램
 - 3.4. 조용필 음악당 및 생가 터 복원

1. 기획 의도

1.1. 기획 배경

송산면은 화성시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면이다. 시화호가 송산면의 위쪽과 서쪽에 잇닿아 있다. 고지도에 따르면 과거 송산면은 사강리, 삼존리 일대, 마산리·중송리·칠곡리 일대를 관할하였다. 시화호가 매립됨으로써 송산면 관할이던 어섬·형도·음성 3개의 섬도 육지로 변해버렸다. 간척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는 송산면 사강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주민들은 염전과 어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으며, 내륙에서 농업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당시 사강시장은 수원, 오산, 평택 사람도 방문할 정도로 규모가 큰 시장이었다.

송산 지역은 3.1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곳이기도 하며, 주민들이 힘을 모아 일본 순사를 처단한 장소이기도 하다.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거주하며, 송산 지역 3.1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이 돈을 모아 지은 송산중학교는 건립 이후에 염전 사업으로 운영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송산은 주민의 저력이 강한 지역이며 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1.2. 기획 목적

- 가. 화성시 송산면의 역사적 사건을 발굴하여 문화콘텐츠로 승화시킬 수 있으며 당시의 애환과 정신을 후대에 전할 수 있다.
- 나. 송산면의 송산중학교, 3.1운동 기념탑, 사강 시장 등을 알리는 동시에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 다. 숭고한 애국지사 위업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시키는 산 교육장으로 마을이 기능을 할 수 있다.
- 라. 화성시 3.1독립운동의 계기와 과정, 결과를 알려서 화성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한다.

1.3. 기대효과

- 가. 송산 지역의 3.1독립운동 과정과 관련 독립운동가를 알릴 수 있으며, 화성시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장소로 개발할 수 있다.
- 나. 향남읍, 우정읍, 장안면 등 독립운동이 일어났지만 비교적 알려지지 못한 지역의 숨은 이야기, 역사적 사건 등을 발굴할 수 있다.
- 다. 송산면에서 누구나 시간, 공간, 경제적 제약 없이 3.1독립운동을 느껴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문화체험 관광 활성화의 기여할 수 있으며, 역사의식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2. 사전 조사

2.1. 송산 지역 3.1독립운동

2.1.1. 전개 과정

1919년 3월 26일, 구장 흥면선의 집에서 호세를 납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향해 흥효선이 “다른 지역에서는 만세를 부르고 있으니 우리도 부르자”고 제안하자 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오후 2시경 면사무소 뒷산에서 오후 4시경에는 주민 100~200명이 송산면사무소로 몰려가 구한국 국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3월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주민들은 만세를 부르면서 마을을 돌았다. 면사무소 앞에서 약 200명이 모여 만세를 불렀으며, 육일리 방면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이에 사강주재소에 근무했던 순사보 장용남, 남양경찰관주재소에서 지원 나온 순사 다케우치와 순사보 2명 등 순사 4명이 육일리 방면으로 출동하자 시위대는 오후 1시쯤 해산하였다.

1919년 3월 28일 사강장날, 1,000여 명의 군중들이 송산면사무소 뒷산과 그 부근에서 구한국 국기를 앞세우고 조선독립을 외치기 시작했다. 서신면 방면, 송산면 중송리 방면에서도 태극기를 내세우고 만세를 창하여 몰려왔다. 오후 3시경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순사보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주도자 흥효선과 예종구를 체포하였다. 이어서 나타난 흥면옥에게 본인임을 재차 확인한 후 체포하여 끌어 앉혔다. 그러나 흥면옥이 이에 굴하지 않고 연속하여 만세를 외치자 노구치는 흥면옥을 향해 총을 발사하며 총상을 입혔다. 이에 격분한 군중은 “순사를 때려죽여라.”고 외치며 노구치를 처단하였다.

이 사건 이후 일제는 송산 일대에 군경을 투입해 대대적인 주동자 검거에 나서는 한편, 보복으로 마을을 불태워 200여 호의 가옥이 소실되었다. 4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강을 중심으로 인근 송산, 마도, 서신면의 20개 마을을 수색하여 175명을 검거하고, 1,202명에게는 서약서를 받고 훈방 조치하였다.

2.1.2. 화성시청 ‘송산 독립운동가 마을’ 조성 사업

화성시청에서는 송산 독립운동가 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중으로 현재 마을 내부에 조형물, 안내판 등을 세우는 단계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송산 리본마을(Re:Born)’로의 재탄생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송산면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 ‘송산 독립운동가 마을’ 조성 사업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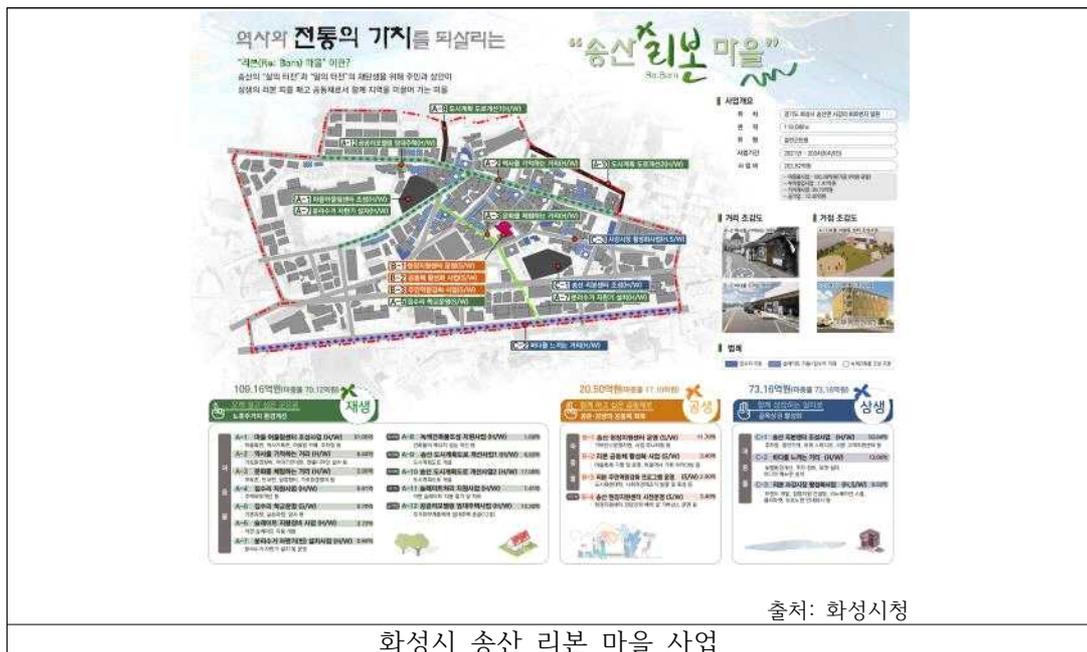
화성시 송산면(사강리 일원)은 격렬했던 독립운동의 항쟁지와 독립운동가들의 거주지였던 마을로써,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간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람 시민들을 위한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 ‘송산 독립운동가 마을’ 조성 사업 기본 계획 방안

- ① 독립운동가 생가 및 주요 유해지 안내시설물 개발
- ② 관람 코스 개발
- ③ 휴게시설 및 조형시설 개발
- ④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 ⑤ 마을 경관 개선

▪ ‘송산 독립운동가 마을’ 조성 사업 기대 효과

- ① 역사적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문화의 공간
- ② 독립운동가 마을로의 새로운 가치 전달
- ③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의 공간
- ④ 지역 공동체를 위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 ⑤ 역사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공간



2.2. 송산중학교

2.2.1. 설립 배경

- 단기 4283년 3월 2일 홍용유 선생이 경기도지사(구자옥)로부터 송산고등공민학교 설립 인가를 받음
- 단기 4286년 2월 고등공민학교 설립자 홍용유 선생은 재단법인 송산학원 설립자 대표 정갑성 선생에게 학교관계 기득권 일체를 무상 양도하겠다고 기부증서를 통해 확약함
- 단기 4286년 5월 19일 정갑성 선생이 문교부장관(김법린)으로부터 재단법인 송산학원의 설립 인가를 받음
- 재단법인 송산학원이 설립될 당시 지역유지들의 사유재산 기부가 이어짐

<기부 내역>

사강리 687번지 이법연 선생은 과수원 16,020평을 무상기부함
마산리 647번지 유제순 선생은 관현정미소를 무상기부함
육일리 136번지 한대석 선생은 육일정미소를 무상기부함
쌍정리 99번지 조경구 선생은 쌍정정미소를 무상기부함
천등리 97번지 김지영 선생은 천일정미소를 무상기부함

- 6.25전쟁 직후, 나라와 개인 모두가 어려울 때, 위 다섯 명은 지역의 후세 교육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을 기꺼이 무상기부 하였으며, 초기 재단법인 이사로서 학교의 기본 틀을 갖추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 또한, 당시 송산지역의 주민들이 힘을 모아 바닷가 염전을 일구어 학교운영에 사용하도록 기부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송산학교의 소중한 수익용 재산이 되었다. 살림살이는 가난하였으나 미래에 대한 꿈은 심대하였던 선인들의 혜안으로 지역사회에 교육의 큰 뿌리가 내려지게 되었던 것이다.⁵⁾
- 학교가 처음 들어선 부지는 의미 있는 곳이었다. 3.1운동의 지역 발상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3.1공원으로 조성된 바로 그 곳에 학교 부지를 마련한 것이다. 일제치하에서 억눌렸던 민족의 울분을 처음으로 터뜨린 그 장소에 국가의 동량을 키워낼 학교를 설립한 것이다.⁶⁾



5) 송산중학교 홈페이지

6) 송산중학교(2019), 「송산중학교 70년사」, 송산중학교, p334

2.2.2. 송산중학교 염전 사업

송산중학교가 건립되고 난 뒤, 화성군 송산면 고정리 315-14번지에 송산중학교 소재 염전을 만들었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독을 쌓아올린 염전이였다. 염전이 다 만들어진 뒤에는 염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 이따금 학생들도 염전에 손을 보태러 갔다고 한다.

시화방조제 공사 기간은 1987년부터 1994년 2월까지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바닷물 유입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귀결되었고, 학교 운영을 위한 염전 사업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⁷⁾

- 송산면사회단체협의회회장 이병길 회장님 인터뷰(20.10.05.)

	
출처: 직접 촬영	
인터뷰 내용	“그렇게 말하면 삼국시대 전이었겠죠, 염벚이라고 해서 아주 원조 시대부터 해서 바닷물을 끌어 올린 것 아닙니다. 소금의 역사는 책을 찾아봐야 하지만 이미 이때는 전성기였고 훨씬 이전에 송산중을 건립한 결정적 계기가 염전 이에요.”

- 송산중학교 문기승 교장선생님 인터뷰(20.10.05.)

	
출처: 직접 촬영	
인터뷰 내용	“학교에서 염전을 했어요. 저쪽에 20만평 염전이 있어서 매년 소금을 해서 그걸 팔아서 그 수익으로 학교 운영하고, 선생님들 봉급도 주고, 소금도 한 포대씩 줬지요. 설립 당시에도 마을 주민들의 뜻과 의지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손으로 직접 쌓아올렸으니까요. 지역 주민들이 송산중학교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7) 전계서, 송산중학교(2019), p.377

2.2.3. 조용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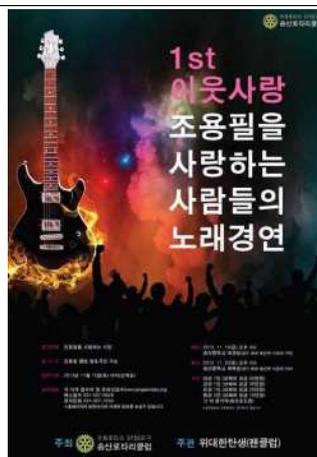
가수 조용필은 송산중학교와 인연이 깊다. 조용필의 부친인 조경구는 송산중학교를 짓기 위해 정미소를 내줬고, 송산중학교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다. 조용필도 송산중학교를 2학년 까지 다녔다고 알려져 있으며, 송산중학교에서 공연을 해 그 수익으로 송산중학교에 기부했다.

아래 본문은 조용필의 생애를 기록한 「낭만광대 전성시대」(2013)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조용필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태어났다. 1950년 3월 21일, 염전업과 정미소를 경영 하던 아버지 조경구(1986년 작고)와 어머니 김남숙(1991년 작고) 사이에서 3남 4녀 중 여섯째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화성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고, 그 재산을 아버지가 고스란히 물려받았기에 조용필의 어린 시절은 풍족한 편이었다. 초등학교 무렵 하모니카 연주에 매료되어 하루 종일 하모니카를 불곤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가수의 꿈을 키우던 소년은 아니었다. 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내성적인 소년이었고, 흥역을 앓다 시력이 나빠져서 한동안 학교를 쉬기도 했던 약골이었다.⁸⁾

그의 고향 경기 화성시가 추진한 생가복원 논란이 불거진 지난주 초 예술의전당 연습실에서 그를 만났다. 화성시가 조용필의 집터와 그 일대를 매입, ‘조용필 생가 관광자원화 사업’을 2007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일부에서 반발이 생긴 날이었다. “그게 아마 ‘생가복원’이라는 말 때문에 반발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조용필 고향 집을 복원해서 관광자원화한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말이죠. 사실 저도 제 고향이 늘 ‘화성 연쇄 살인사건’ 등 부정적 이미지로 비쳐지는 게 마뜩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겠다고 했을 때 크게 반대하지 못했어요. 고향이 잘 되게 하자는 일인데요 뭐...”

중학교 3학년 때 떠난 고향, 누구에게나 고향은 생각만 해도 가슴 저릿한 곳이기 에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고향이 됐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었다.⁹⁾



출처: 송산로타리클럽
조용필 노래 경연 대회 1회(2013년)

8) 오광수(2013), 「조용필과 아날로그 시대의 대중문화 사수기, 낭만광대 전성시대」, 세상의 아침, p.22

9) 상계서, 오광수(2013), p.66

2.3. 사강 시장(경기 화성시 송산면 사강로 189)

- 개설 연도: 1915년 4월
- 점포 수: 450 개소 757여명 종사(5일장 개장 시 노점상수: 150여개)
- 주요업종: 해산물(회센터 유명), 천일염(소금), 농산물(송산포도), 바지락 칼국수
- 유형: 재래시장(5일장-2일, 7일)
- 지역여건 및 시장특성: 인근에 바다가 인접하여 있고, 농촌이 혼재한 지역으로 제부도 행락지가 가까운 지역이다. 풍부한 수산물 및 소금의 출하와 함께 일용 잡화 등을 취급하는 시장 기능이 발달함에 따라 시장 면모를 갖추어 현재 이르고 있다. 천연기념물 414호인 공룡알 화석지, 제부도, 궁평항, 전곡항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시장 내 회센터는 유명세를 타고 있다.



출처: 화성시청

사강시장 전경



출처: 화성시청

사강시장 내부

2.4. 송산 포도

- 시화방조제가 생기며 어업이나 염전을 하던 주민들이 송산을 떠났다. 이후 송산면에 남아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포도 재배를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이는 농어촌에서 농촌 지역으로 탈바꿈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송산 포도' 외에도 '샤인 머스캣' 등을 재배하며 주민들에게 고소득 작물로 재배되고 있다.
- 매년 화성시청 주관 '송산 포도 축제'를 열어 '포도 밟기 체험', '포도 낚시', '포도구출 작전',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 10만 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화성시를 방문한다.



출처: 화성시청

2017년 송산 포도 축제

3. 문화콘텐츠 제안

3.1. 마을 해설사 양성

○ 내용

-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정확히 안내·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 인력을 양성한다.
-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사명감과 정확한 언어구사, 관광서비스 마인드를 갖추는 전문교육 실시한다.
- 화성시 송산면과 인근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산업의 해설 안내 기법, 해설스피치 기법, 그때 그 시절 스토리, 선진지 답사 등 해설사로서 갖추어야 할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진행한다.

○ 목적

- 마을 주민이 마을에 숨겨진 이야기나 역사적 사건에 관심을 갖고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나 마을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고장에 대한 관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고장 고유의 문화프로그램이 형성될 수 있다.
- 주민을 마을 해설사로 양성함으로써 전문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으며,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들에게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
- 마을 해설사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인이 마을에 유입될 수 있으며 특색 마을로 거듭날 수 있다.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 마을 해설사라는 매개를 통해 마을 주민들끼리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며, 마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재정립될 수 있다.

3.2. 화성시 서남부권 메모리 아카이브

○ 내용

- 화성시 송산면은 시화방조제가 건설되기 전에는 바다가 들어왔던 곳으로 어업과 농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곳이었다. 발달된 사강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했고 여러 문화가 조화롭게 뒤섞여있었다. 하지만 간척 사업이 시작되면서 화성시 송산면은 육지가 되었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대다수의 주민은 고향을 떠났다. 풍족했던 해산물도 채취할 수 없었고, 농업의 기류도 변했다.
- 화성시 송산면에는 오래전부터 염전이 운영되고 있었다. 지역 위치와 기후가 소금을 만들기 적합한 조건이었다. 일본식 염전이 있기 전에는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염벚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화성시 송산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홍사옹 옹(92세)의 증언을 통해서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 화성시 송산면 주민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송산중학교를 건설했다. 학교 건설 공사도 주민들이 직접 했다. 학교 담벼락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모두가 달려 나가 보수 공사를 했다. 사립학교였던 송산중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학교 재단으로 만든 염전을 운영하기도 했다. 염전을 운영해 교육 환경의 질을 높여주고, 교직원 복지를 지원했다.
- 이렇듯 화성시 송산면 주민들을 만나며 알게 된 숨겨진 이야기들이 매우 많다. 사람들이 지역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이끌었고, 지역은 많은 변화를 거쳤다.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료가 대다수이며, 화성시 송산면의 과거를 기억하는 이들도 소수이다. 이는 명백히 지역의 유산이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화성시 송산면의 문제가 아니다. 화성시 서남부권 지역마다 지역이 가진 색다른 이야기가 있으며, 한시라도 빨리 이를 아카이브 할 필요성이 있다.

○ 목적

- 화성시 서남부권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아카이브 작업을 한다.
- 개인의 인생사, 개인이 목격한 지역의 변천사,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기억 등을 정리해 화성시의 지역 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특히 지역의 변천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주민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신속한 아카이브 작업이 필요하다.

3.3. 송산 기억 프로그램

○ 내용

- 화성시청에서 진행 중인 ‘송산 독립운동가 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송산 지역의 흩어진 기억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송산면에서 일어난 3.1 독립운동, 한국전쟁 등의 콘텐츠로 제작해 알린다.
- 송산중학교가 설립된 배경과 운영되어 온 과정 등을 활용하여 과거 송산면에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점, 염전을 통해 학교를 세웠다는 사실을 알린다.
-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 하여 송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 특히 송산중학교, 3.1독립운동 기념탑, 송산독립운동가 마을 코스 등을 연결하여 하나의 투어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수 있다.

○ 목적

- 화성시 송산면에 대한 역사적 사건과 경험을 발굴하고 콘텐츠로 기획해 애국선열 및 공훈 선양과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
- 송산은 화성의 서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송산이 독립운동가 마을로 조성되게 되면, 화성시의 특화 마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 송산면 개발을 시작으로 화성시 서남부에 위치한 다른 마을을 발굴해 새로운 특화 마을로 조성할 수 있다.

3.4. 조용필 음악당 및 생가 터 복원

○ 내용

- 국민가수 조용필의 아버지인 조경구 선생은 송산중학교 건립에 큰 기여를 했다. 조용필은 화성시 송산면에서 태어나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송산중학교를 다녔다. 그의 구술을 기록한 책에도 송산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 조용필도 송산중학교에 방문해 공연을 하고 수익금으로 송산중학교에 기부했다.
- 이런 점에서 조용필과 그의 아버지 조경구 선생은 송산면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 우선적으로 화성시 송산면에 조용필 음악비를 건립하여 조용필의 고향임을 보여주고, 화성시 송산면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릴 수 있다.
- 추후에 조용필 음악당을 준공해 음악,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화성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목적

- 국민가수 조용필의 고향이 화성시 송산면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화성시 송산면을 재조명할 수 있다.
- 조용필 음악당을 준공해 화성 시민들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

화성재인청
이동안

「이동안 예술을 기리고 배우다」

1. 기획 의도
 - 1.1. 기획 배경
 - 1.2. 기획 목적
 - 1.3. 기대효과

2. 사전 조사
 - 2.1. 이동안
 - 2.2. 사례 조사

3. 문화콘텐츠 제안
 - 3.1. 화성 향남 농악제
 - 3.2. 이동안처럼! 발탈꾼 모임
 - 3.3. 이동안 라키비움

1. 기획 의도

1.1. 기획 배경

화성시의 다양한 지역문화자원 중에서 조선 최고의 예술인 이동안이 화성시의 대표 무형문화자원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재이다. 조선시대 공연 예술과 관련된 예인을 관리, 교육하고 각종 행사를 주관 했던 곳이 재인청이었다. 화성재인청은 규모가 가장 커 삼도의 재인청을 총괄하였고, 재인청이 화성에 확실하게 자리 잡자 많은 무격들이 곳의 모든 절차를 이곳에서 학습하였다. 이동안은 화성재인청의 마지막 도대방으로 화성재인청류 춤을 집대성하였다. 하지만 이동안의 삶과 민속연희에 대한 관심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소규모 모임인 '화성 향남 농악제'사업을 진행해 마지막 도대방 이동안을 재조명해보려 한다.

1.2. 기획 목적

- 가. 화성, 수원, 오산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논쟁점이 남아 있기에, 화성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안이 남긴 일화, 시대적 가치, 연관성 등을 발굴하여 문화콘텐츠로 개발한다.
- 나. 화성시 향남읍의 전통 농악과 풍물을 되살려 마을 축제를 진행함으로써 민속연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특수한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다. 화성재인청 이동안의 생애와 역사 등을 재조명할 수 있고, 발탈춤 등 민속연희를 교육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다.

1.3. 기대효과

- 가. 이동안의 재조명을 통해 지역의 농악 및 풍물을 복원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사이의 유대감 형성 및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
- 나. 이동안의 고향인 화성시 향남읍을 문화 사업의 거점으로 삼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통 무용 및 연희 예술가들을 화성으로 모으며,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다.
- 다. 마을 축제를 넘어 전국의 농악을 되살릴 자극제가 될 수 있다.

2. 사전 조사

2.1. 이동안



2.1.1. 생애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송곡리 137번지 출신으로 민속무용의 대가로 중요무형문화재 제 79호 발탈 기능 보유자인 이동안(李東安)은 살풀이·태평무·승무·진쇠춤·검무·희극무·선달무·북춤·소고춤 등 17가지의 춤에 능했고, 어름산이(줄타기)·대금과 태평소·남도잡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예의 소유자였다.

14세 때에 남사당패에 홀려 무단 가출을 했고, 1920년 박승필에게 박탈되어 광무대 및 원각사, 문낙정에 출연하게 되면서 10여 년간 본격적으로 예인의 수업을 받게 되었다. 재인청 출신이며 당대의 춤 명인이었던 김인호(金仁鎬) 선생에게 30여 종의 전통 무용과 장단을 배웠다.

1927년 일본 전 지역 순회공연을 했으며, 1929년에는 대동가극단에서 임방울, 이화중선 등과 같은 당대의 명인들과 중국 만주를 거쳐 러시아 국경지대까지 순회공연을 했다.

1973년 서울로 올라와 신당동에 무용학원을 개원하였다. 1975년 국악협회 온양지부장을 지냈으며, 1977년 3월 4일 한량춤 및 발탈 발표회(전통무용연구회 주최)를 개최하였다.

1979년 공간사랑에서 발탈 장기공연을 하였으며, 1982년 한국 국악협회 서부 지부 지부장을 지냈다. 한국국악협회의 공로상을 수상했다. 1983년 한국명무전(세종문화회관)과 한국명무 큰잔치(서울 국립중앙극장)에 출연했다. 1985년에는 무용인생 80년을 기념하는 공연 '이동안 춤판-팔순 기념공연(문예회관 대극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20여 회에 걸쳐 '발탈 및 전통무용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김백봉(金白峰), 문일지(文一枝), 배정애(裴貞愛) 등 무용계의 거목들이 대부분 그의 제자이다. 신숙(愼淑)과 장월중선(張月中仙)에게는 잡가를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2. 재인청춤

화성재인청과 일정한 연관이 있는 예인들에 의해 다듬어지고 전승된 춤이다. 이는 재인, 무부, 광대 등으로 구성된 자율적 조직이다. 재인청춤은 앞서 열거한 예인들이 추었거나 다듬어 발전시킨 춤을 일컫는다. 특히 경기도 화성재인청 출신의 예인들에 의해 다듬어진 춤을 특정하기도 한다. 화성재인청의 춤 선생으로 알려진 김인호의 맥을 이은 이동안, 전통춤을 집대성한 한성준, 그리고 경기도도당국의 맥을 잇는 도살풀이의 명인인 김숙자 등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 인물들 중에서도 특히 이동안의 활동이 주목할 만하다. 이동안의 춤은 조선 후기에서 근대를 거쳐 오면서, 다른 전통춤과는 대별되는 하나의 뚜렷한 유파를 형성했다. 이동안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로 추었고, 비교적 활발하게 전승되는 것으로 기본무·태평무·진쇠춤·신칼대신무·승무·살풀이춤 등이 있다.

2.1.3. 발탈

발탈은 인간 배우와 인형 배우가 함께 등장하여 시종일관 티격태격하며 재담으로 서로 다투는 전통연희이다. 발탈은 ‘발작난’, ‘족(足)탈’, 족가면(足假面), ‘발탈춤’등으로도 불린다. 이 명칭들은 모두 발에다 가면을 씌우고 조종하는 독특한 연행 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발탈은 가면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다른 가면극에서처럼 얼굴에 쓰는 것이 아니라 발에 씌우는 것이며, 등장하는 인형 배우의 머리 부분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만 가능할 뿐이다. 발탈의 놀이판은 가로 2m, 세로 1m 정도로 사각의 검은 포장막을 치고, 연희자가 그 속에 들어가서 발탈 인형을 조종한다. 포장 안에는 연희자가 앉아서 연희할 수 있는 의자가 있다. 포장 앞면의 중심부를 잘라 내어 발을 포장 앞으로 내놓는다. 발에 가면을 씌우고 대나무로 만든 인형의 팔을 옆으로 벌린 다음, 그 위에 저고리와 마고자를 입혀 어수룩한 모습의 인물로 만든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탈. 한쪽 발에 탈(가면)을 씌어서 연희하는 예능

2.1.4. 이동안 조부 이화실

상당한 예인으로 장안에 그 명성이 자자하였고, 특히 단가와 피리의 명인이었다. 전형적인 한량의 삶을 살았던 데다가 그의 부인이 유명한 무당이였다는 진술(이동안 선생의 마지막 부인인 안남국 여사의 진술)이 있다.¹⁰⁾

2.1.5. 이동안 부 이재학

화성 재인청 출신으로, 기악(해금)에 조예가 깊었다.

2.1.6. 옥당 정경파(이동안 수양딸)

1936년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에서 태어났다. 무당인 외할머니와 다섯 살 때부터 함께 어정판에 다니며 어머니 정이옥이 주는 살풀이를 접하게 되었다. 수원 풍화당에 기거하던 이동안을 만나면서 재인청의 살풀이춤을 전수받게 되었다. 살풀이춤은 남의 한과 내 설움이 명주수건자락에 용해되어 무속바탕과 예술성을 동시에 표현해야 한다고 정경파는 주장했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 8호 승무, 살풀이춤의 기능보유자인 옥당 정경파는 14살 때 권번에 들어가면서 춤을 시작했다. 아리랑 여성국극단, 대한여성국극단 등을 거쳐 50년이 넘는 세월을 오로지 춤과 함께 해왔다. 지난 91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 8호 승무, 살풀이춤의 보유자로 지정된 정경파는 이후 매년 발표회를 열며 화성 재인청의 화려한 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고 승무, 살풀이춤 외에도 검무, 신칼대신무 등 여러 가지 전통춤에 능하다. 자신의 스승이자 수양 아버지였던 운학 이동안의 전통무용을 전승해 온 정경파는 우리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온 수원 화령전을 전수교육장이자 거처로 삼으면서 우리 춤사위를 연구하는 데 전념했다.

10) '재인청의 역사3', 강영화의 틈새문화, 용인시민신문, 2003년 5월 15일

2.2. 사례 조사

① 부평풍물대축제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내용	1997년에 축제를 시작한 이래 부평의 자긍심과 고취에 노력하고,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통하여 풍요로운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성과	신명나는 축제로 인천, 부평의 자랑 축제로 풍물을 통한 개방과 나눔, 교류와 소통을 위한 축제로 자리 잡았다.
관련 사진	 <p>출처: 인천시청</p>

② 필봉마을 풍물굿 축제

지역	전라북도 임실면 강진면
내용	필봉마을굿축제는 필봉농악이 전국적인 풍물굿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 고 양순용 명인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열리고 있다. 축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공연,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한다.
성과	팔봉농악에 내재된 정신, 집단적 신명 등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며, 2019년까지 24회를 개최하며 꾸준히 지역 사회의 큰 축제로 역할을 하고 있다.
관련 사진	 <p>출처: 임실군청</p>

3. 문화콘텐츠 제안

3.1. 화성 향남 농악제

○ 내용

- 풍물의 신명을 되살려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풍물을 치고 대동놀이를 즐기던 옛 마을 농악놀이의 전통을 재현하고, 아이들과 함께 체험과 공연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 만들고자 한다. 이로 인해 화성지역 마을 농악놀이를 전승·보급·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화성 향남 농악제’ 사업에는 화성 지역 풍물패가 참여하고 남아있는 마을 농악을 발굴하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과거에는 각 마을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사라진 마을 농악과 풍물을 재조명한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풍물패가 어우러지고 서로의 풍물을 나누며 경연을 펼친다.
- 경기도 국악 명인들의 초청하여 공연을 열 수 있다.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국악 공연을 ‘화성 향남 농악제’에서 진행하므로 마냥 어려운 문화예술이라고 느껴지는 국악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할 수 있다.
- ‘화성 향남 농악제’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통체험, 전통악기 연주, 전통 놀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옛 문화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화성시 향남읍에 화성농악, 전통악기 등을 상설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수요생을 대상으로 국악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

○ 목적

- 화성재인청 이동안의 고향인 화성시 향남읍에서 농악제를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 농악 문화가 사라진 현대에 농악과 풍물 문화의 재생산은 큰 의미를 갖는다. 마을의 농악과 풍물 문화를 회복하고 마을이 재생될 수 있다.
- ‘화성 향남 농악제’를 통해 민속연희 명인이나 예술가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민속연희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 ‘화성 향남 농악제’에서 진행되는 아이들 전통체험, 전통악기 연주 등을 통해 세대 간의 화합을 이뤄낼 수 있고, 새로운 문화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가수 이남치의 ‘범 내려 온다’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한국 판소리가 가진 재미와 매력을 전세계인이 알게 된 사례가 있다.
- 화성시 향남읍에서 진행되는 마을 축제에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

3.2. ‘이동안처럼! 발탈꾼 모임’

○ 내용

- 화성시 각 지역의 주민을 모아 소규모 화성재인청 이동안 발탈 모임을 구성한다.
- ‘이동안처럼! 발탈꾼 모임’을 통해 자율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문화, 예술교육,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문화가 일상이 되는 화성시를 만들 수 있다.
- 소모임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 한국 전통 무용 전문 강사를 섭외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 ‘이동안처럼! 발탈꾼 모임’에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지니게 하여 더 열성적이고 보람 있게 모임 활동을 하게 한다.
-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로얄X파크’에서 원데이 클래스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화성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 목적

- 화성시 문화예술교육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내 문화 예술 소모임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한다.
-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실천을 통하여 다양한 이동안류 문화를 꽃피우는 상상력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지역 주민 중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
- 전국 고전 무용 및 한국 무용을 화성시로 한데 모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문화예술사업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3. 이동안 라키비움

○ 내용

- 이동안 라키비움은 이동안과 관련된 단행본 잡지, 총서, 문고 등을 수집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도서관, 이동안에 대한 연구 자료나 구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 이동안의 예술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구성된 복합예술공간이다.
- 도서 파트에서는 이동안에 대해 출판된 단행본 및 잡지, 총서, 문고 등을 모두 모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외에도 고전무용, 국악, 줄타기 등을 특화도서로 잡아 장서를 확충할 수 있다.
- 기록 파트에서는 이동안과 관련된 학술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 보존한다. 이동안 연희본, 구술자료, 영상자료, 사진자료, 보도자료, 해외자료 등 유무형을 나누지 않고 디지털화 시킨다. 이동안 외에도 이동안의 제자, 화성재인청과 관련된 자료도 수집하여 점차 전국 재인청에 대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
- 박물관 파트에서는 이동안과 관련된 유형 자료를 전시하고, 기획전시를 진행한다. 영화상영, VR체험, 화성재인청이나 이동안 관련 문화프로그램 진행 등을 담당할 수 있다.

○ 목적

- 이동안과 화성재인청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 관리, 2차 가공 후 문화프로그램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라키비움에서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이동안 라키비움을 통해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복합적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해 무용뿐 아니라 기악, 악극 등 다원적 전통문화를 효과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공연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 화성재인청과 이동안에 대한 화성시민의 인식 확대와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다.
- 오프라인 라키비움이 준공된다면 화성재인청과 이동안의 전통문화자원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 거점이 마련되게 된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화성시를 대표하는 시설이 될 수 있다.

남양성모성지

「화성시 서남부 천주교를 잇다」

-화성 서남부 스탬프 여행

1. 기획 의도
 - 1.1. 기획 배경
 - 1.2. 기획 목적
 - 1.3. 기대효과

2. 사전 조사
 - 2.1. 'Time Travelers'
 - 2.2. 장소
 - 2.2.1. 남양성모성지
 - 2.2.2. 요당리성지
 - 2.2.3. 왕림성당
 - 2.3. 사례 조사

3. 문화콘텐츠 제안
 - 3.1. 천주교 성지 여행

1. 기획 의도

1.1. 기획 배경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남양성모성지'는 천주교 수원교구의 성지(聖志)이다. 병인 박해(1866) 때 목숨을 잃은 무명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순교성지로 한국 천주교회가 성모성지(聖母聖地)로 공식 선포한 곳이다. 이곳은 전국각지에서 연간 수만 명이 방문하는 성지로 유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문객이 남양성모성지를 둘러본 후 지역을 떠난다. 1991년 한국에서 최초로 성모성지로 선포된 후, 1995년 2월부터는 성지만을 전담하는 사제가 따로 임명되어 성지 개발과 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에 있는 천주교 관련 건축물 혹은 관광명소를 추천하는 안내서를 제작하려고 한다.

1.2. 기획 목적

- 가. 화성시에서 천주교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발굴하고 관련 시설을 재조명할 수 있다.
- 나. 남양성모성지를 비롯한 천주교 시설과 화성 8경, 각종 문화 기관 등을 방문할 수 있게 유도하여 숨어있는 관광지를 개발한다.
- 다. 화성시의 관광자원을 문화프로그램으로 기획해 도입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타 지역 및 해외에서 알아주는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다.

1.3. 기대효과

- 가. 화성시 서남부권을 지역 주민 및 다른 지역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 나. 화성시 서남부권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다. 화성시 서남부권에 있는 천주교 시설 및 관광지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사전 조사

2.1. 'Time Travelers' 소개

'Time Travelers(시간여행자들을 위한 여행안내서)'는 (주)더000에서 기획하고 발간한 단행본이다. 동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간직한 골목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48시간 동안의 골목여행을 제안하는 잡지로 한 지역의 여행지, 맛집 등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호에서는 수원 행궁동의 골목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촬영장소 한옥', '한데우물', '행궁마을 커뮤니티 아트센터' 등 주요 관광지를 한데 묶어 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제시했다.

'천주교 성지 여행'도 남양성모성지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 여행 이동 경로를 제시하려고 한다. 화성시 남양리 남양성모성지,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성지, 화성시 봉담면 왕림성당(갯등이 성당)을 비롯하여 화성 서남부의 각종 관광지를 발굴할 수 있다.

2.2. 장소

2.2.1. 남양성모성지(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12)

○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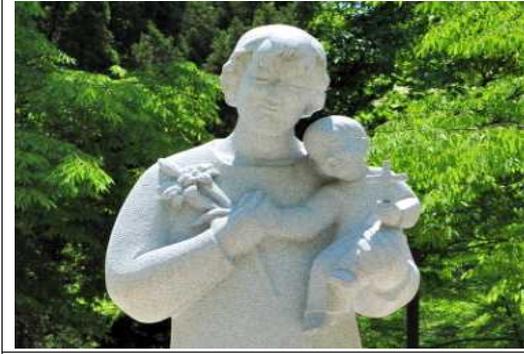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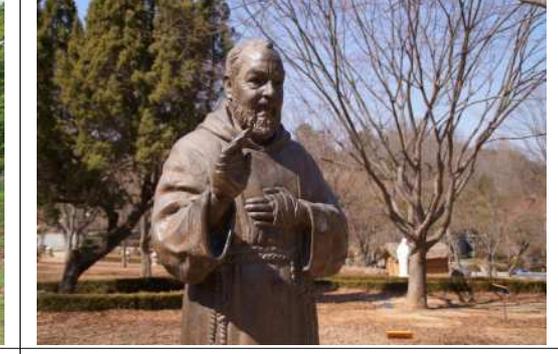
1866년 병인박해(丙寅迫害) 때 1만 명에 이르는 천주교인들이 희생되었는데 이곳 남양도 호부에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끌려와 처형당했다고 한다. 치명일기와 증언록에는 남양의 순교자들로 김 필립보와 박 마리아 부부, 정 필립보, 김홍서 토마 등 4인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더 많은 이들이 남양에서 숨졌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의 손자로 서소문 밖에서 참수 당한 이재의가 남양부의 백학 교우촌에서 성장했고, 1803년 순교한 제관득도 남양 지역에서 숨어 지내다 체포되었으며 남양 지역의 백학과 활초리 등지에 교우촌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등을 보아 남양에 일찍부터 천주교가 전파되어 신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이름 없이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천주교인들의 순례지가 바로 남양성모성지이다. 남양성모성지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높이 3.5m의 성모상을 비롯하여 예술 동상, 과달루페 성모상, 성 요셉상, 비오 신부상 등의 동상과 길이 약 1Km의 20단 목주기도의 길, 십자가의 길, 초 봉헌실, 성체조배실 등이 조성되어 있다.

○ 운영 시간 및 입장료

미사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고해성사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다. 개인 순례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다. 입장료는 없다.

○ 내부 사진

	
<p>초 봉헌실</p>	<p>남양 성모 상</p>
	
<p>성 요셉 상</p>	<p>성서에 따른 십자가 길</p>
	
<p>20단 목주 기도의 길</p>	<p>비오 신부 상</p>

출처: 남양성모성지

○ tvN 드라마 '청춘기록'의 배경

tvN에서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방영한 '청춘기록' 드라마 배경으로 남양성모성지가 등장했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의 관심이 몰리기도 했다.



출처: tvN

청춘기록 8화 장면



출처: tvN

청춘기록 8화 장면

○ 화성 팔경

남양성모성지는 화성 팔경 중 제8경으로 지정하여 홍보하고 있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 한국 최초의 성모성지 선포

남양성모성지는 병인박해 때의 순교지로 1983년부터 순교성지로 개발되어 오던 중 1991년 10월 7일 로사리오의 성모 축일에 수원 교구장 김남수 안젤로 주교에 의해 성모께 봉헌되고 한국 천주교회 내에서는 처음으로 성모성지로 공식 선포된 곳이다. 성모성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루르드, 파티마, 바뇌와 같이 성모의 발현에 의한 발현 성모성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전세계 3,000여곳에 이르는 성모성지들의 대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거나 교구 및 인간의 의지로 성모께 봉헌된 성지들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남양성모성지는 순교성지로 가꾸어져 오고 있던 자리를 교구 및 인간의 의지로 성모께 봉헌해 드리고 성모성지로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이면서도 독특한 역사를 가지는 성지라고 할 수 있다.¹¹⁾

11) 이상각(2006), 「남양 성모성지의 유래와 사목 방향」, 교회사학, 3권 3호, p285

○ 단풍 명소

가을이 되면 남양성모성지는 단풍 명소로 유명해진다.



출처: 경기문화재단

남양성모성지 가을 모습



출처: 경기문화재단

남양성모성지 가을 모습

○ 주변 명소 및 음식점(참고: 한국관광공사)

	이름	사진	남양성모성지 기준 거리
관광지	남양향교		1.5km
	윤계선생순절비		1.7km
	봉림사(화성)		2.5km
	홍난파 생가		3.2km
음식점	남양옛날불낙지		1.4km

출처: 한국관광공사

2.2.2. 요당리성지(화성시 양감면 요당길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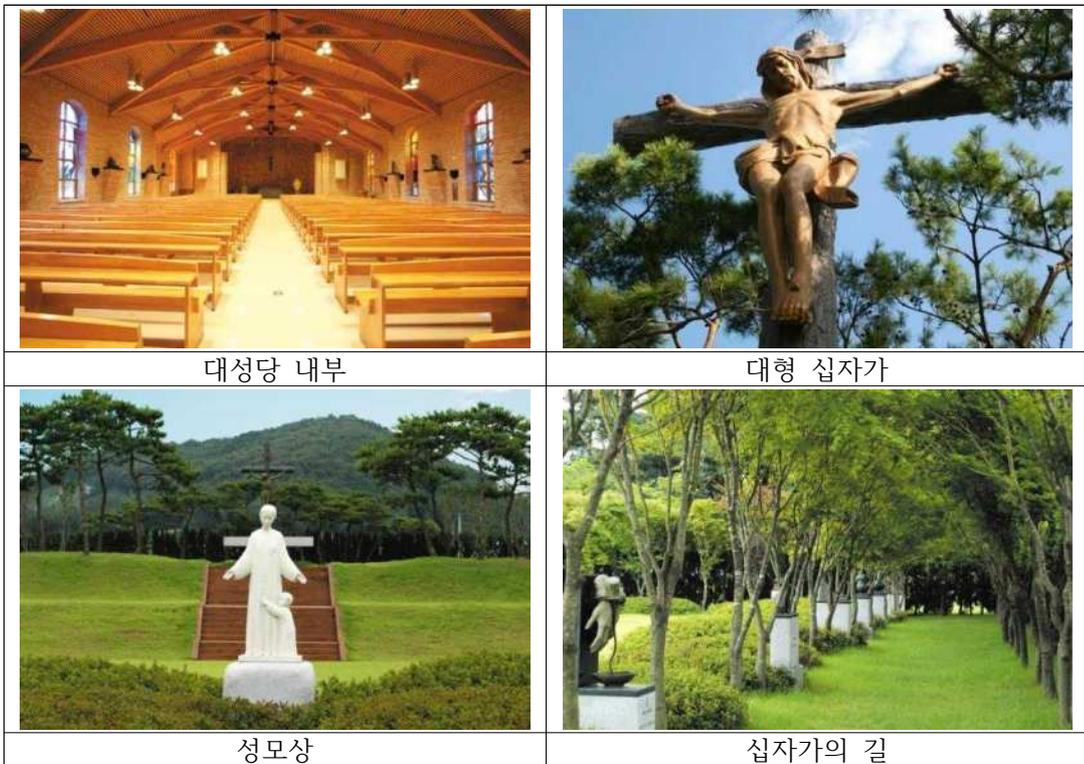
○ 소개

이곳 요당리성지는 복음이 언제 전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신유박해(1810년)를 기점으로 서울과 충청도 내포 등지의 신자들이 피난하면서 형성된 교우촌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교우촌은 양간공소라 불리며 갯등이(현재 왕림)와 은미공소(현재 양지)와 깊은 연계되어 활발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였다. 그리고 바닷물이 유입되어 뱃길이 열렸던 이곳의 지리적 특성상 충청도와 경기도 내륙, 서울을 잇는 선교루트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해년(1839년)과 병인년(1866년)에 일어난 두 번의 박해를 통해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로 하느님을 증거한 신앙의 요람지였다.

○ 운영시간 및 입장료

매일 평일 11시에 미사가 있고, 월요일은 없다.

○ 내부 사진



출처: 요당리성지

○ 주변 명소 및 음식점(참고: 대한민국구석구석)

	이름	사진	요당리성지 기준 거리
관광지	화성 은행나무마을		650m
	우리꽃식물원		9.7km
	남양호(남양항라) 화성 8경 중 제5경		13.6km
	흥승인고가		14.4km
	화성 베어팍 테마파크 (현재 단체입장만 가능)		17.5km
음식점	-	-	-

출처: 대한민국구석구석

2.2.3. 왕림성당(화성시 봉담읍 왕림1길 71)

○ 소개

왕림을 상징하는 ‘갯등이’는 갯을 쓴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제를 의미하며, 박해시대에 왕림 교우들이 사용하던 은어이다. 종현(현재의 명동, 1882년 설립), 원산(1887년 설립) 본당에 이어 한국 교회의 세 번째 본당이자 수원교구의 뿌리인 왕림 본당은 조선시대 교역과 교통의 요충지였다. 선교사들이 충청도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관문이었다. 수원에서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좁고 한적한 산길 가에 있으므로, 천주교박해 초기부터 교인들이 피신하여 용기를 구우면서 생활하여 교우촌이 형성되었다. 1839년 주교 앙베르(Imbert)가 이곳에 피신하여 전교하였다. 1866년의 병인박해를 전후해서는 몇몇 순교자까지도 배출하였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교우촌이 공소(公所)로 발전하여, 1888년 신부 앙드레(Andre)가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함으로써 한강이남 경기도 최초의 본당이 되었다. 1889년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가성당이 처음으로 건립되었고, 1890년 신부 알릭스(Alix)가 부임한 뒤 1895년에 미리내 본당이 분할되었으며, 1901년에는 33칸의 기와집 성당이 건립되었다. 1907년 개설된 서당인 삼덕학교(三德學校)는 1917년 부임한 신부 김원영이 신명의숙(新明義塾)으로 개편, 현재의 광성국민학교(光星國民學校)의 전신이 되었다. 갯등이 본당은 그 뒤 일제강점기를 거쳐 1971년에 현재의 성당이 들어섰고, 1984년에는 수원 가톨릭신학대학이 이곳에 설립되었다.

○ 내부 모습



출처: 한국한중양연구원

○ 131년의 역사를 가진 경기도 최초의 성당

‘왕림’은 ‘백학’, ‘양간’ 등과 함께 수원고을에서 천주교 신앙의 불씨를 간직하고 보존하던 곳이었으며, 평신도 지역 선교의 거점이었다. 또한 박해시대 조선대목구장 주교가 삼남지방을 순방하러 갈 때 (자주)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에는 1830년대 후반에 앙베르 주교에 의해 ‘갯등이 공소’가 설치되었다. 1888년 7월에는 수원교구 해당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본당으로 설정되어 이곳에서 미리내, 하우현, 안성 등 각지에 자본당이 분가되어 나가게 되었다.

수원교구 지역 내 초창기 성사 공동체 중 하나이며, 최초의 본당 공동체로서 오늘날 수원 지역 복음화의 중요거점으로 역할하고 있다.

○ 주변 명소 및 음식점(참고: 대한민국구석구석)

	이름	사진	왕림성당 기준 거리
관광지	용건릉		6km
	용주사		9.2km
	제암리3.1운동순국 유적지 (화성 8경 중 제7경)		13.2km
	화성비봉습지공원		18km
음식점	주말농장 한식마을		4.9km

출처: 대한민국구석구석, 화성시청

2.3. 사례 조사

① 착한 공정여행, 하루

기간	매주 토, 일, 공휴일 진행(09시~17시 전후)
주최	화성시청
내용	생태·문화투어(바다의 숨결, 파도의 숨결, 공룡의 숨결 등), 테마투어(농어촌체험, 문화예술체험, 해양레저체험 등)와 같은 코스를 만들어 화성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터	 <p>출처: 화성시청</p>

② 용산기지 주변지역 워킹투어

기간	2020년 11월 5일 ~ 2020년 11월 21일
주최	서울시청
내용	서울 한 가운데 용산미군기지를 개발하여 개방했다. 용산미군기지 13km 담벼락을 8개 코스로 구성하여 워킹투어를 운영한다.
포스터	 <p>출처: 서울시청</p>

3. 문화콘텐츠 제안

3.1. 천주교 성지 여행

○ 내용

- 화성시 서남부 지역의 주요 천주교 시설을 중심으로 투어 코스를 만들고, 그 주변 관광지나 유적지, 식당과 연결해 화성시 서남부권에 오래 머물도록 할 수 있다.
-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로얄X파크’를 마지막 방문지로 삼아 모든 스탬프를 다 찍고 온 사람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수 있다. 더불어 ‘제부도 아트 파크’를 중간 관광지에 포함시켜 화성시 소재의 복합 문화 시설을 방문해 문화예술을 즐기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단체로 움직이는 기존의 ‘시티 투어’와는 다르게 개인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루트를 제시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단체 여행이 아닌, 개인적 여행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제한이 있는 가능성이 높다.
- ‘천주교 성지 여행’ 발간 후 화성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투어를 할 수 있는 ‘화성 서남부 이야기 투어’을 정기적으로 기획해 화성시민과 타 지역 시민의 여행을 유도한다.
- ‘화성 서남부 이야기 투어’을 정기적으로 기획해 관광객의 일회성 방문을 지양하고, 지속가능성이 짙은 사업으로 발전시킨다. 이 과정에서 방문자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화성 서남부 이야기 투어’에 관심을 갖는 사람, 추천 루트로 여행을 한 사람 등 여러 사람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이 공간에서 서로의 여행기를 나누거나 숨겨진 화성시 서남부권의 명소, 맛집 등을 공유할 수 있다.

○ 목적

- 화성시 서남부권에 사람이 유입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
- 서남부 지역의 천주교 공간을 발굴하여 화성시와 천주교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 책자만 보고 떠나는 여행으로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획이며, 현재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인 ‘레트로’와도 연결할 수 있고 중장년층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서남부 지역에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발굴·연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 지역 관광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
-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로얄X파크’나 ‘제부도 아트 박스’와 같은 화성시 소재의 복합 문화 시설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으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세부 방법

- ‘남양성모성지’, ‘요당리성지’, ‘왕림성당’을 기준으로 하여, 반나절 코스·하루 코스·이틀 코스를 계획한다. 동선에 주변 관광지나 맛집을 함께 배치한다.
- ‘천주교 성지 여행’은 스토리와 문화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다. 예를 들어 각 천주교 공간이 가진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제공한다.

- 스탬프 북을 중심으로 투어를 하는데 천주교 공간에는 스탬프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활용해 여행을 하며 스탬프를 찍을 수 있게 한다. 천주교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작은 스탬프를 설치하여 도장을 찍게 한다.
- ‘천주교 성지 여행’ 사업의 반응이 좋으면 정기적 발간물인 ‘화성 서남부 이야기 투어’를 제작할 수 있다. 나아가 ‘화성 서남부 이야기 투어’ 커뮤니티를 형성해 서남부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끼리 소통할 수 있고, 개인의 여행기나 여행 조연을 나눌 수 있다.

○ 추진 전략

- 정기적인 발간: ‘천주교 성지 여행’ 사업의 반응을 본 뒤, ‘화성 서남부 이야기 투어’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서남부 지역의 숨겨진 관광명소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책을 펴내면 독자층이 생길 것이다. 또한 화성 서남부 지역 여행 책자로 오랫동안 역할을 할 것이다.
- 스탬프 북: 주기적으로 ‘화성 서남부 이야기 투어’를 발간한다면 꾸준히 도장을 모아보려는 관광객이 생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탬프 북이나 스탬프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하며, 각 스탬프에 스토리텔링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 화성시 복합 문화 공간 활용: 화성 시민이나 타 지역 사람들에게 화성시에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알릴 수 있으며,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천주교 성지 여행> 지도(가안)



출처: 네이버 지도

간척지대

화성 서남부 간척지대, 바닷길을 걷다

- 우정읍 선창포구, 서신면 왕모대포구 일대 마을 활성화 계획

1. 기획 의도

- 1.1. 기획 배경
- 1.2. 기획 목적
- 1.3. 기대 효과

2. 사전 조사

- 2.1. 화성호 인근 간척지대
 - 2.1.1. 우정읍 주곡리 선창포구
 - 2.1.2. 서신면 왕모대포구
 - 2.1.3. 화옹(화성)방조제 간척사업
 - 2.1.4. 간척 이후의 어촌

3. ‘화성 서남부 간척지대, 바닷길을 걷다’

- 3.1. 문화콘텐츠 제안
 - 3.1.1. 간척지 인근 어촌 아카이브
 - 3.1.2. 바닷길을 걷다, 간척지대 걷기길 조성

1. 기획 의도

1.1. 기획 배경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쟁을 통한 영토 증강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각국이 국토를 늘리기 위해 선택한 것은 간척사업이었다. 고려시대부터 시작해 오늘날까지 전국 각지에서 시행된 간척사업.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다. 간척 덕분에 농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도 있었으나, 인근 어촌에서는 어종의 변화와 어획량 감소, 해안선 매몰로 인한 일터의 상실 등 이면에서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선창포구와 왕모대 어촌은 오랫동안 살아온 고향을 지키기 위해 애써 남아있는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생업을 놓아버려, 버려진 땅이 되었다. 에코 뮤지엄 등 환경체험의 보고(寶庫)로 경기만 일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이 때, 어촌에서 농촌으로, 농촌에서 공업단지로 변해버린, 방치된 서남부 지역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

1.2. 기획 목적

간척사업을 통해 바닷길이 막혀, 생계를 잃어버린 우정을 선창포구, 서신면 왕모대포구 마을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공생염전의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치유의 장으로서 화성 서남부 일대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로서 작용한다. 이전의 모습과 활기를 잃어버린 두 어촌에 대한 구술기록을 통해 어떤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지 수렴함과 동시에 그들의 아름다운 때를 전시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바닷길을 걷다’ 라는 테마로, 이전의 바다를 메꾼 간척지대를 외부 방문객들이 걸어볼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수집 자료들을 산책로에 표지판의 형태로 함께 배치하면서 모한 신비감과 추억, 교육을 전하고자 한다. 자연스레 산책로는 화성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생태습지체험으로 연계 가능하도록하고자 함이다.

1.3. 기대효과

현 중장년층의 경우, 한창 선창포구와 왕모대포구에 대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에서 한시간 내외로 오갈 수 있었던 바다의 풍경, 인심 좋은 횡집 사장들. 본 사업은 이러한 점을 함께 조명하여, 비록 현재는 그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으나 방문객의 지속적 유치를 통해 이전과 같은 ‘추억의 어촌마을’ 형식으로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가령 현재 마을 뒤편으로 보이는 들판 옆으로, 이전 바다가 있었던 흔적을 보여주는 옛날 사진이나 벽화 등을 통해 외부인의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특이 여행지로 활성화가 가능토록 한다.

2. 사전 조사

2.1. 화성호 인근 간척지대

2.1.1. 우정읍 주곡리 선창포구

서울에서 한 시간 내외 거리에 위치한, 갯벌을 감싸고 있던 포구였다. 갯골을 바탕으로 조그마한 포구가 있으며, 잘 조성된 선착장이 달리 없어 큰 어선들은 별개의 선외기를 이용해 조업물을 마을까지 운반했다. 주곡리 선창포구의 주 생산물은 새우와 어패류로, 남양만 일대부터 풍도까지 조업활동을 진행했다.

본래 선창포구는 새우와 새우젓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도매상이 찾던 곳이었으나, 점차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면서 생산자-소비자 간의 직거래 장터로 변모하였다.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직판장을 개설하였고, 이전까지는 각자의 집 앞에서 소소하게 판매하거나 중간판매상에게 부탁하는 방식이었다. 외부관광객들에게 각광받는 지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마다 어부들이 직판장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공동체가 힘을 합쳐 표지판 설치, 화장실 설치 및 관리 등에 힘써와, 조용한 마을은 금세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다.

2.1.2. 서신면 왕모대포구

서신면에 위치한 용두리라는 동네는, 산봉우리를 끼고 있는데 그 모양새가 꼭 용의 머리 같다 하여 이름 지어지게 되었다. 산봉우리 주변으로 물이 빠지면 갯벌이 펼쳐지고, 물이 차있을 때는 조업으로 왕래하는 배들로 가득 차있었다. 한때, 남양팔경의 하나로 '죽포귀범'이라 불렸는데, 해가 질 때의 갯벌의 모습이 아름다워 이름 붙여진 것이다. 이전에는 앞바다를 영종포, 영종뿌리라 불러 화성군 남양부로 침입하는 적을 격퇴하는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되었다. 인근에 영종포진이 남아있으며, 영종이라는 이름은 효종 대에 이르러 오늘날 인천의 영종도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왕모대는 용머리의 끝자락에 위치해, 포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이었다. 이곳에는 왕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다는 전설과, 왕의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왕모대 마을은 전통과 천혜의 어장으로 포구가 발달해서 새우, 바지락, 맛, 낙지, 주꾸미, 농어, 준치, 송어, 망둥어 등 많은 해산물이 생산되던 곳이었다. 이에 주곡리와 마찬가지로 외부 관광객을 위한 횃집, 조개구이집 등의 점포가 대거 운영되었다.

2.1.3. 화옹(화성)방조제 간척사업

국내 간척사업의 역사는 고려시대 1235년, 몽골군의 침략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하던 때부터 시작된다. 당시 해상방어를 위해 연안을 간척하여 제방을 조성한 것이 최초의 간척사업이 된다. 이후 1248년, 식량난을 경계한 고려는 북방의 백성들을 섬에 옮기고, 새로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개간할 것을 명¹²⁾했으니 이것이 농지조성목적로서는 최초이다.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강화와 김포 일대에 식량생산을 목표로 간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화옹지구 간척사업은 농업용수와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1991년에 시공되어, 2003년 완공되었다. 총 9.8km 길이의 화옹방조제가 축조되었으며, 이는 우정읍 매향리와 서신면 궁평리 사이를 잇는다. 이에 따라 4482ha의 간척지가 개간되었고, 1730ha의 인공호수, 화성호가 조성되었다. 해당 전경은 다음과 같다.



12) 북계 병마사(北界兵馬使) 노연(盧演)에게 명하여 북계의 여러 성(城)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옮기어 해도(海島)로 입보(入保)하게 하였다. 위도(葦島)라는 곳은 10여 리(里)나 평탄하고 넓어 농사를 지을 만 하였지만, 바다의 조수(潮水)가 염려되어 개간(開墾)하지 못하였는데, 병마 판관(兵馬判官) 김방경(金方慶)이 영(令)을 내려 제방을 쌓고 종자를 부리게 하니, 백성들이 처음에는 괴로워하였으나, 가을이 되자 크게 풍년이 들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힘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동국통감』 고려 고종 35년(1248), 무신년(戊申年)

2.1.4. 간척 이후의 어촌

주곡리 선창포구 일대와 서신면 왕모대 일대는 이전까지 해수가 곧장 맞닿던 지역이었다. 이를 통해 어업, 조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곳이었으나, 간척사업을 통해 기존의 간척지대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간척지대가 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이에 따라 생활기반을 두고 있던 주민들은 어획량 감소, 어종 변화 등의 타격으로 생계 위기를 맞이했다.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해양생산학과에서 집필한 논문 『화성호 간척사업이 어촌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¹³⁾은 화성호 간척사업이 인근 주민들에게 끼친 영향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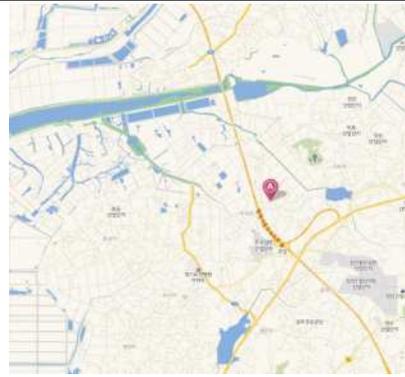
2017년 설문 기준 어업종사자들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큰 폭의 형태를 보이지는 않아 변화한 환경에 즉각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어업종사자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어선어업, 어패류 맨손채취 등 전통적 어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수준 또한 간척사업 이전까지는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소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생활수준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나, 환경변화 이후 해당 소득자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 특히 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13%에서 4% 수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화성호 일대 마을은 간척 이전에는 부채 1000만 원 미만 가구가 약 50%에 해당하는 등 전체적으로 부채액이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간척 전 부채액 5000만 원 이상의 가구 비율이 7%에서 16%로 증가하는 등 보상금 지급 등의 보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확인된다.



13) 정병근·장호영, 『화성호 간척사업이 어촌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2017



1919년 제작, 발안장지도 중 일부 확대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현 선창포구 위치 (출처-국토지리정보원)

위에 제시한 지도처럼, 간척 이전에는 선창포구와 왕모대포구 바로 앞까지 바다가 들어오는 형세였으나 오늘날에는 완전한 육지가 되어 사실상 어업 활동은 사장상태이다. 이에 일부 농민들은 농사를 겸하며 생계를 잇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점차 쇠퇴하여, 간척지대 일대에 공업단지가 들어서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3. 화성 서남부 간척지대, 바닷길을 걷다

3.1. 문화콘텐츠 제안

3.1.1. 간척지 인근 어촌 아카이브

간척에 따른 환경변화로, 기존 어촌민들은 생계를 잃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몇몇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고, 어떤 이들은 어망을 내려놓고 익숙치 않은 농사를 시작했으며, 누군가는 손님의 발길이 끊긴 가게를 지키고 있다. 이들을 찾아가 인터뷰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여 선창포구 마을과 왕모대 마을의 역사,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좌절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위안이 되기도 하며, 인터뷰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수렴하고, 시측의 심정은 어떤지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어촌이 농촌이 되고, 공업단지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역사적인 부분을 조명하며,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있을지 청사진을 그려보는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이다.

조사가 끝나면 선창포구, 왕모대 마을에 전시관을 조성한다. 간척 이전 모습을 고지도와 주민 제공 사진으로 전시하고, 주민 삶의 기록을 그들의 사진과 인터뷰 영상으로 전시하고자 한다.

3.1.2. 바닷길을 걷다, 간척지대 걷기길 조성

마을 아카이브의 연계점으로 제시하는 사업으로, 한 때 바다였던 주곡리 선창포구와 서신면 왕모대포구 인근에 ‘바닷길을 걷다’ 라는 주제로 트래킹 코스를 조성한다. 보통 시민들에게 ‘여기까지 바다가 들어오곤 했다.’ 라고 전하면 쉽게 연상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간척지대를 걷기 축제 무대로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켜보고자 한다.



1. 선창포구 걷기 길 (출처-네이버 지도)



2. 왕모대 걷기 길 (출처-네이버 지도)

선창포구 / 왕모대 코스별로 편도 기준 약 30분이 걸리는 간척지대를 걷기 길로 조성한다. 현재 해당 부지는 철조망 등으로 폐쇄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일반 대중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조성된 길 주변에는 바닷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음향기기를 설치한다. 이외에 옛 공중전화 부스 모형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전화를 받아들면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재생되어 들을 수 있도록 한다. 표지판에 해당 지역이 그려진 고지도를 부착하고, 관광객이 서있는 이곳이 옛날에는 바다였음을 알려주도록 한다. 이는 곧 개방된-공간성을 초월한 전시관이 되는 것이다.

이는 청년시절 화성서부를 찾던 장년층들에게는 추억을, 청소년층에게는 옛 바닷길을 걷는 이색적인 경험을 선물해줄 것이다. 이렇듯 외부인 유입을 통해 어촌인들의 쇠퇴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위 길의 조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화성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성호 습지 콘텐츠와 연계하는 걷기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인선

수인선, 화성의 기찻길 나들이

- 화산터널부터 빈정철교까지

1. 기획 의도
 - 1.1. 기획 배경
 - 1.2. 기획 목적
 - 1.3. 기대 효과
2. 사전 조사
 - 2.1. 수인선
 - 2.1.1. 수인선의 역사
 - 2.1.2. 화성시 구역 내 수인선
3. '수인선, 화성의 기찻길 나들이'
 - 3.1. 문화콘텐츠 제안
 - 3.1.1. 힐링, 기찻길 따라 걷기
 - 3.1.2. 돌아온 꼬마열차, 레일바이크

1. 기획 의도

1.1. 기획 배경

최근 2020년 9월, 수원역에서 인천역까지 이르는 수인선 전철노선이 완전 개통되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개설되어 한 때는 수탈의 수단으로, 한 때는 경기도민의 발이 되어주었던 협궤열차가 전철로 다시금 태어난 것이다. 수원시와 인천 각 시에서는 수인선을 둘러싸고 전시 및 기록 등의 콘텐츠 기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관할 수인선 역사 내에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한 전시를 해두어 이목을 끌고 있다. 소래포구에서는 수인선 박물관을 통해 수인선의 성지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미 상당한 부분에서 인천시나 수원시가 선점을 했지만, 화성시에도 수인선을 콘텐츠로 승화할만한 여러 단서들이 존재한다. 화오목천역 뒤편, 화성시가 시작되는 화산터널과 안산과 화성을 잇는 빈정철교, 이 사이에 놓인 폐 노선들. 이들을 보전하고 활용할 관심이 필요하다.

1.2. 기획 목적

언급하였듯, 수원과 인천 등 타 지역에서는 수인선에 대한 관심을 보내며 문화콘텐츠 활용을 위해 자료 수집, 전시회 개최, 브랜드 선점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인선을 기억하고, 그 흔적을 좇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찾는 곳은 화성시다. 수인선은 각지에서 도시계획 및 개발로 이전의 흔적들이 상당수 유실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화성시의 경우엔 그 노선이 방치되어있기는 하나, 대체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는 않아 철도 애호가들과 여행을 즐기는 이들에게 즐겨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공룡알, 용주사, 용건릉과 같은 전국적 명소로서 수인선 협궤열차의 흔적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는 역사의 보전임과 동시에, 화성시민들에게 근처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휴양지 하나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갑갑함을 느끼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지만 불안감에 쫓겨 떠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철길을 따라 걷는 시간은 충분한 휴식과 일탈이 되어 줄 것이다.

1.3. 기대효과

화성시 안에 속한 수인선 철로를 철길 옆 산책로로 조성하거나, 철로를 복원하여 모노레일로 만들어낸다면 화성시민만이 아닌, 타 지역 시민들에게도 충분한 방문 의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SNS 상에서는 빈정철교와 철로길을 걷는 여행이 꼭 유행인 듯 일파만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찾아가면 어디가 맞는 길인지, 위험한 곳은 아닌지 걱정되어 쫓겨 발길을 옮기지 못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개선한다면 미개발지역인 어천, 야목 등지에도 유동인구가 점차 늘어날 것이다. 당장은 아무것도 없지만, KTX 개통 예정인 어천역과 함께 수인선 구 선로를 정비하는 단계적 사업에 발맞춘다면 인근 상권이 자연스레 생겨남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2. 사전 조사

2.1. 수인선

2.1.1. 수인선의 역사

수인선은 1937년에 개통한 협궤열차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의 물자를 국외로 반출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보다 앞서 1931년 수여선이 개통되었는데, 수여선은 곡식을 서울로 나르기 위한 목적이었다. 더 나아가 수인선은 곡식과 함께 경기만 일대 염전의 소금을 수송하고자 증설되었다.

일본인 소유 회사였던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운영하였으며, 당시 수원군 수원읍에서 인천부 용현동(현 인천 미추홀구)까지 운행되었다. 광복 이후 철도청 소관이 되고, 화물 수송의 비중은 줄고 여객수송의 비중이 커졌다. 하지만 간척사업을 통해 경기만 일대의 어민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이에 따라 기차 수요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어서 버스와 자가용의 비중이 점차 늘면서 수인선 협궤열차의 수요는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이에 차례로 노선이 단축되기를 반복하다가 1995년에 폐선되었다. 시간이 흘러 2012년, 오이도~송도간 노선이 전철화되면서 운영을 재시작 했고, 최근 2020년 9월 수원역과 인천을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최종 개통되면서 폐선 26년만에 완전 부활하게 되었다.

	
수인선에 오르는 승객들 (출처-인천투데이, 김용수 작가)	수인선 마지막 운행 (출처-인천뉴스)

2.1.2. 화성시 구역 내 수인선

화성시 구역 내에 위치한 수인선 역사(驛舍)는 경기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위치한 어천역, 경기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위치한 야목역이 있다. 이중 어천역은 1937년, 수인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전소되어 한동안 운행이 중지되었고, 1958년에야 역사가 복구되었다. 1975년에는 이전 구 역사가 새로 준공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 수요가 급락함과 함께 간이역으로 격하되었다. 1996년에 영업이 중지되어 민간인에게 소유가 넘어갔다. 가정집으로 활용되던 어천역은, 2013년 수인선 전철화에 따라 철거된 후 새로이 역사를 건설했다.

야목역 역시 1937년, 수인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광복 이전에 수요문제로 폐역되었다. 1949년에 간이역으로 다시 운영을 재개하였으나, 1996년에 수인선 운행 중단과 함께 폐역되었다. 운행 중지 이후, 승강장 터를 중심으로 집이 들어서면서 역사 인근으로 이전의 흔적이 사라졌다.



3. 수인선, 화성의 기차길 나들이

3.1. 문화콘텐츠 제안

3.1.1. 힐링, 기차길 따라 걷기

근래의 교통수단은 어떤 목적지로 자신을 데려다 주기 위한 도구로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전처럼 느린 열차에 몸을 싣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목적과 결과를 추구하는 사회상 속에서 사람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에, 버려져있는 폐 선로의 흔적을 보수하여 시민들이 낭만을 느낄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트래킹 코스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수원 오목천역 뒤편의 화산터널부터 시작해 안산의 빈정철교까지 이르는 산책로를 조성한다면, 화성시를 종주하며 충분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경로가 될 것이다. 선로를 따라가다 보면, 옛날 역사를 품은 시설들을 볼 수도 있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 논밭이 가득한 마을을 만날 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자기관리 등의 운동을 위한 시설 조성을 넘어, 언제나라도 쉽게 여행을 떠나듯 찾아갈 수 있는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산터널과 빈정철교라는 화성시의 끝과 시작이 정해져 있어, 걷는 이들로 하여금 도전정신과, 성취감을 고양시키도록 한다. 적당한 움직임과, 밝은 풍경은 코로나 블루로 힘겨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위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주 1회, ‘수인선 역사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산책’이라는 타이틀로 수인선로 산책과 함께 수인선의 역사를 들여볼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화산터널 (출처-네이버 블로그)

3.1.2. 돌아온 꼬마열차, 레일바이크

위에서 언급한 기차길 걷기를 응용한 사업 제안이다. 위에서는 폐 선로 곁을 걷는 식의 산책로를 구현한다면, 본 사업에서는 일부 선로를 복구하거나 새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탑승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로 조성하고자 한다. 선진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의왕시의 레일바이크, 모노레일 테마파크 등을 참고하여 화성의 레일바이크 파크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는 역사를 보존하는 과업임과 함께, 이전에 없던 관광특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훈령으로 제정된 ‘철도 유희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폐 선로 부지 활용계획을 제안할 경우 검토를 거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선 레일바이크를 비롯해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광주 푸른길 등이 철도 유희부지를 활용한 사례로 소개된다. 정선은 폐선된 정선선 구절리~아우라지 선로를 활용해 레일바이크와 풍경열차, 카페, 기차펜션 등의 아이템을 도입했고, 현재는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에, 화성시 측에서도 남아있는 선로와 흔적을 현장 조사하여 레일바이크 파크 부지로 선정한다면 인근 지역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치리라 판단된다.



빈정철교 (출처-네이버 블로그)

2.3. 추가 제안

마을기록
프로젝트

마을기록 프로젝트

- 화성서남부지역 문화콘텐츠 수집

1. 기획 의도
 - 1.1. 기획 배경
 - 1.2. 기획 목적
 - 1.3. 기대효과

2. 마을기록 프로젝트
 - 2.1. 제안 사업 소개
 - 2.2. 사례 소개

1. 기획 의도

1.1. 기획 배경

현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 개인화와 함께 공동체 커뮤니티의 해체를 맞이했다. 고향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낯선 주택단지가 메우고 있다. 세대 간 갈등은 이데올로기, 문화수요 등에서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타인과의 접촉이 금기시되면서 더욱 악화된 상황에 놓여있다. 내년 내로 백신이 배포되고, 방역 수칙 또한 철회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사태 이후의 사회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존재한다. 비대면 생활이 익숙해짐에 따라, 타인을 존재 그 자체보다는 수단으로 여기는 풍조가 짙어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 역시 강해질 것이다. 이에 현 시대의 시민들은 인간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기에 급급해, 타인의 삶을 생각할 겨를 없었던 이들에게 마을기록 프로젝트는 그 대안이 되어줄 것이다.

1.2. 기획 목적

마을기록은 사라져가는 마을 커뮤니티의 재형성과 보존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정치적 사건, 사회적 파장 등의 거시적 역사는 언론과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의 집필과 연구로 후대에 보존된다. 하지만 미시적 역사, 즉 지역사와 민중사는 관심을 가진 기록자가 나서지 않는 이상 사태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현 상황에도 도시의 팽창과 개발에 따라 많은 지역민 커뮤니티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는 지역의 전통 문화와 관습을 잃음과 마찬가지로, 마을기록을 통해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함과 함께, 마을기록을 매개로 주민 및 기록자들이 소통,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1.3. 기대효과

단절된 지역 커뮤니티의 재형성, 마을기록 문화의 정착을 통한 주민들의 주체적인 지역 변화 기록과 문화자원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시민 기록자들이 직접 기록한 데이터를 토대로 자료집을 생산하고 전시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고, 대내외 지역을 알리는 홍보효과를 전망할 수 있다.

2. 마을기록 프로젝트

2.1. 제안 사업 소개

화성시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마을기록학교를 운영, 기록자들의 지역 자료 수집을 통해 기록물 출판 및 전시를 행하는 사업이다. 마을기록학교는 시민들이 기록의 주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기록 기술전수 등을 행하는 강좌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화성시 서남부 마을기록 프로젝트에서는 마을기록학교를 통한 세 단계의 진행 방법을 제시하는데, 기본과정-심화과정-주체적 활동 및 발전이 이에 해당한다. 기본과정에서는 시민들에게 기록의 의미 및 방법론을 강의로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기록자간 커뮤니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한다. 심화과정에서는 기록대상 마을의 구역을 선정 후, 시민 기록자들이 직접 구술 인터뷰에 참여하도록 한다. 기록자들이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집 제작 및 전시를 행한다. 주체적 활동 및 발전과정에서는 화성시 각 지역의 마을기록자, 시민기자, 마을해설사 등의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지원하는 단계를 거친다.

- 운영방식은 기본과정 주1회, 8주 강의이며 심화과정 주1회 3주 강의로 진행
- 기본과정 6강 이상 참석자에게 수료증 수여, 심화과정 참여 자격 부여
- 심화과정 수강하며 ‘주민기자단(가칭)’ 구성원으로 활동
- 코로나19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하며 필요 시 온라인 강의로 전환

기본과정

구분	강좌명	강의내용
1강	마을기록의 이해	아카이브 입문과정
2강	기록의 의미와 마을기록	좋은 기록의 조건, 마을기록 방법
3강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	화성시 지역학
4강	사진을 통한 기록	사진 아카이브
5강	영상을 통한 기록	영상 아카이브
6강	구술아카이브	구술사의 이해, 구술인터뷰 방법
7강	구술기록글쓰기1	구술녹취를 바탕으로하는 글쓰기
8강	잡지를 통한 마을기록	골목잡지 사이다 기록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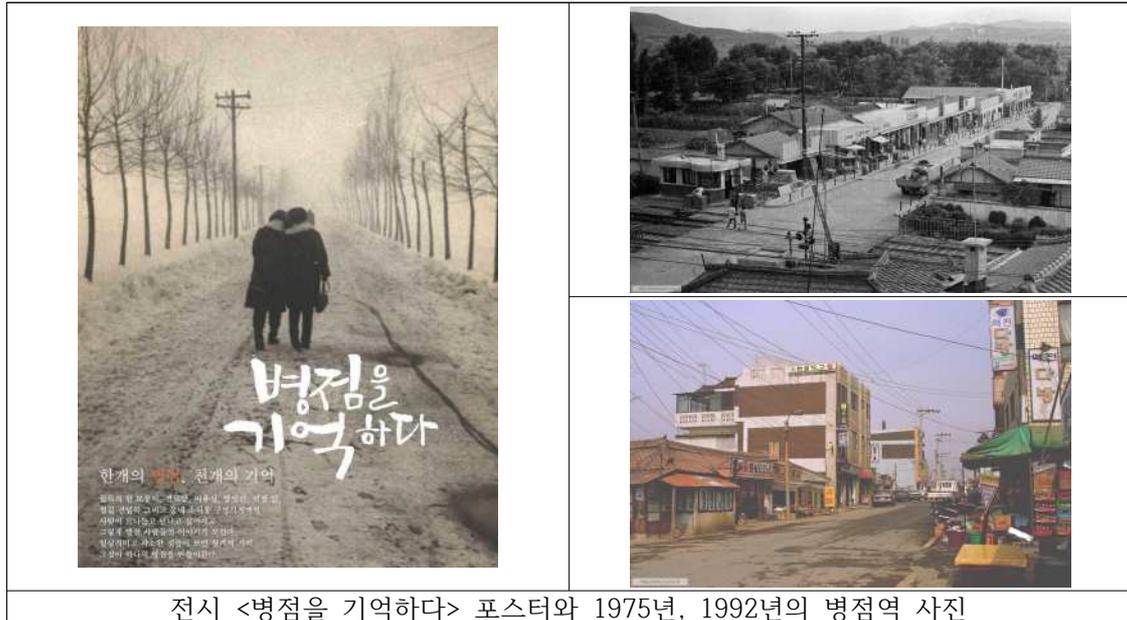
심화과정

구분	강좌명	강의내용
1강	구술기록 글쓰기2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강	마을소식지만들기 1	취재를 바탕으로 마을소식지 만들기
3강	마을소식지만들기 2	취재를 바탕으로 마을소식지 만들기
	수료식	교육이수자 대상 수료식

마을기록학교 강의 일정 예시

2.2. 사례 소개

2.2.1.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마을기록학교



2017년 진행한 마을 아카이빙-마을기록학교 활동. 지속적인 구술 강의를 통해 기록자들이 스스로 인터뷰 대상자 선정 및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과정 속에서 사진 등의 개인 소장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당신의 병점 이야기> 책자 제작 및 전시를 진행했다.

2.2.2.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마을기록학교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마을 아카이빙-마을기록학교 활동 시작, 12월 전시와 마을 기록지 발간을 앞두고 있다. 웹페이지 아카이브 시스템인 워드프레스를 활용하는 강의를 추가로 접목하였으며, 인터뷰 및 조사 간 제공받은 사진들을 업로드 해 공유 및 보존하고 있다.

2.2.3. 충청북도 제천시 원도심 활성화지구 마을기록학교



제천시 마을기록학교 강의 현장과 수료식 사진

출처: 직접촬영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시작한 마을 아카이빙-마을기록학교로, 시민 기록자들의 인터뷰 직접 참여와 자료 수집을 진행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책자 발간 및 전시 기획을 진행 중이다.

참고문헌

○ 공생염전

<단행본>

-『삼국유사』

-『삼국사기』

-『승정원일기』

-화성시사 5권 - 어업과 염업의 변화

<기타>

-KMDB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 한국영상자료원

-공생염전 12호 염부 이순용 씨 인터뷰

-모토이 야마모토 웹페이지 <http://www.motoi.biz/>

-신안 증도 소금박물관

-한국관광공사

-영광군농어촌교육체험협의회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연극협회

○ 이옥과 화성

<학술논문>

-김군태(1991), 「이옥의 문학기론과 작품세계의 연구」(1991), 창학사

-박수밀(2018), 「이옥(李鈺)의 문학에 나타난 벌레, 꽃, 물의 표상」, 열상고전연구회, 열상고전연구62

-김경미(2015), 「개인적인 삶에 대한 긍정과 지식의 재배치-이옥의 <백운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회, 고전문학연구48

-박균섭(2009), 「학문의 자유와 통제 : 이옥의 문체와 정도의 문제반정」,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30

<단행본>

-실사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2009), 「백운필1. 선비가 가을을 슬퍼하는 이유」, 휴머니스트

-실사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2009), 「백운필2. 그물을 찢어버린 어부」, 휴머니스트

-실사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2009), 「백운필3. 벌레들의 괴롭힘에 대하여」, 휴머니스트

-채운(2013), 「글쓰기와 반시대성, 이옥을 읽는다」, 북드라마

-설흔(2011), 「멋지기 때문에 놀러왔지」, 창비

○ 송산면

<학술논문>

- 이용창(2018), 「재판 관련 기록으로 본 화성 장안 · 우정면 3·1만세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2
- 이계형(2018), 경기도 화성지역 3.1운동의 연구동향과 과제, 국민대학교 학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50
- 박환(2002), 「경기도 화성 송산지역의 3.1운동」, 정신문화연구 25
- 이춘흥(2002), 「지역농업과 경관의 개선을 통한 농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의 포도농업을 사례로-」, 한국농어촌관광학회, 농어촌관광연구9

<단행본>

- 송산중학교(2019), 「송산중학교 70년사」
- 오광수(2013), 「조용필과 아날로그 시대의 대중문화 사수기, 낭만광대 전성시대」, 세상의 아침

<기타>

- 송산중학교 문기승 교장선생님 인터뷰(20.10.05.)
- 송산면사회단체협의회장 이병길 회장님 인터뷰(20.10.05.)

○ 화성재인청 이동안

<학술논문>

- 허용호(2008), 「한일 발인형연행의 양상 비교와 그 형성 과정」, 『비교민속학』 36, 비교민속학회
- 김민경, 이성신(2014)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공간 협력 방안」

<단행본>

- 전경옥(2004), 『한국의 전통연희』, 학교재
- 허용호(2004), 『발탈』, 국립문화재연구소

○ 남양성모성지

<학술논문>

- 이상각(2006), 「남양 성모성지의 유래와 사목 방향」, 교회사학, 3권 3호
- 김옥희(1982), 「천주교초기본당사적지」, 『신학전망』57, 대건신학대학
- 양승탁, 이승근, 유진룡(2018),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종교관광객 동기와 행동구조 분석」, 한국관광연구회, 관광연구저널 32(12)
- 서종태(2006), 「기타주제 : 남양성모성지의 미래 방향」, 교회사학
- 이상각 외 1 명(2019), 「영성문화자원으로서 남양성모성지의 가치를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연구」, Culture and Convergence

<단행본>

- 양정석(2017), 「남양 도호부의 시간을 거닐다」, 화성시청

<기타>

- <습지와 폐교를 활용한 '바람새마을', '책마을해리'>, 에너지경제, 김효주 기자, 2018.09.12.

○ 간척지대

<학술논문>

- 정병곤·장호영, 『화성호 간척사업이 어촌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2017, 한국향토문화대전
- 유영성, 『2007.04 서해안 간척사업현황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07

<단행본>

- 『동국통감』
- 최춘일, 『경기만의 갯벌』, 경기문화재단, 2000

<기타>

- 새만금 방조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smgcstory>
- 국토지리정보원
- 박혜림, <경기만 소금길, 생명을 담다>, 인천일보, 2020
- 화성시 공식 블로그

○ 수인선

<단행본>

- 정대웅, 최유종, 『도시경계의 재해석을 통한 폐선부지 재생방안 - 인천 (옛)수인선 폐선로 유희부지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2018

<기타>

- 경기도 멀티미디어
- 한국철도공사
- 이병기, <옛 수인선의 흔적, 아예 지우려 하는가>, 기호일보, 2017